

## [사례집]

2020 여성 의료 경험 사례 수집

여성들이 병원에서 경험한 순간들

한국여성민우회

2020.11

#### 일러두기

본 사례집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2020년 3월~9월 동안 한국여성민우회가 온라인 서식을 통해 수집한 여성들의 실제 의료경험 사례입니다. 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영지(박영지), 노새(홍연지), 그리고 미몽(강혜란)이 함께 정리하고 각색하였습니다.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20년 4월~7월, 9~10월까지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본 프로젝트에 후원해주신 320명의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여는 글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은 OECD국가 중 상위권이며 남성의 기대수명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건강수명은 기대수명과 20세 정도 차이를 보이며 심지어 남성보다 낮습니다. 의학수준은 발전하고 건강보험 혜택은 확대되는데 왜 자신의 건강수준이 양호하다고 대답하는 여성의 비율은 해마다 낮아질까요? 이는 정책수립과정에 여성의 경험과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책수립과정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2년마다 발표되는 <여성건강통계>(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여성건강연구단)는 정책수립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여성건강 증진 목적의 연구 활성화 및 정책개발 마련을 위한 여성건강통계는 젠더기반폭력을 누락하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지표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1인 비혼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유배우자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만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치/관리 관점의 건강결과와 질병부담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환자가 겪는 과정, 여성의 경험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올해 민우회 여성건강팀은 성차별적인 의료 환경에 가려졌던 여성들의 의료경험을 모으고 가시화하기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간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330개의 사례가 들어왔고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불쾌했던 의료경험이 있나요?”에 ‘있다’란 답변은 96.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불쾌했던 이유는 무례한 언행(166명), 진지하지 않은 태도(120명), 위압적 태도/불필요한 질문 (87명), 수술 치료 진료 전후 부족한 설명(86명), 불쾌한 신체접촉(82명), 과잉진료(43명), 의료기구/기술(27명), 미용수술 권유(20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복수선택).

설문결과에 따르면 여성 100명 중 97명은 부당하거나 불쾌한 경험을 합니다. 어떠한 개선 없이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들이 병원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진단과 치료는 늦어져 건강권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사례집은 여성들의 의료경험 사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말, 성희롱, 과잉진료, 미용시술 권유, 의료기구, 젠더의식부족 등 의료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의료진에게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의료계가 의료진중심, 기술중심, 질병중심이 아닌 환자중심, 인간중심, 소비자중심, 사람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 사례집이 의료진, 정책기관에 닿아 의료 환경 개선과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모두의 건강권 보장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례집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료경험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부족한 설문에 참여해주신 여성분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사례를 읽어야 하는 부담에도 자문에 응해주신 시민건강연구소 김새롬님, 산부인과 전문의 최예훈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11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영지(박영지), 노새(홍연지) 그리고 미몽(강혜란)

## <목차>

### 여는 글

### 본문

## 1. 여성들이 병원에서 경험한 순간들 .....6p

### 1. #반말 #고압적 태도 #권위적태도

- [유형1] “어디가 아픈데? 처치실로 가.” - 반말 진료
- [유형2] “아줌마” “엄마” “OO야” - 호칭의 문제
- [유형3] 학생/청소년이 겪은 무례한 의료경험 사례
- [유형4] “질문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 - 병원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 [유형5] 수술 전 불필요한 노출과 안내 없음
- [유형6] “그게 아픈 거예요?” 환자 말 믿지 않는 의료진

### 2. #맨스플레인 받고 #닥터스플레인

- [유형1] 의사도 모를 때 - 자기가 모른다고 환자에게 화내는 의사들
- [유형2] “상식인데 모르시는 것 같으니 설명해드릴게요” - 환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
- [유형3] “웬만하면 결혼해라” “살 빼셔라” - 갑자기 혹은 들어오는 ‘고나리질’
- [유형4] 사후피임약을 왜 혼나면서 처방 받아야 하나요?

### 3. #부족한\_설명 #부실한\_진료

- [유형1] 진료 전: “어차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냥 하세요”
- [유형2] 진료 중: “자세한 건 유튜브 영상보세요.” 부실한 진료

### 4. #과잉진료와 #미용시술 권유

- [유형1] “환자분, 보험적용 검사만으로는 부족해요.” - 과잉진료사례
- [유형2] 산부인과 ‘이쁜이수술(소음순 성형수술)’ 권유 사례
- [유형3] 산부인과 제모 시술 권유 사례
- [유형4] “하시는 김에 같이 하시죠.” - 기타 미용시술권유 사례

### 5. #진료중\_성희롱 #성추행 #불필요한 신체접촉

- [유형1] 불쾌한 신체접촉 사례들 #이비인후과\_진료의사 #물리치료 #산부인과 #청진기 #초음파
- [유형2] “이 남자 저 남자랑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진료 중 벌어지는 언어 성희롱
- [유형3] 개인정보유출, 불법촬영 사례

**6. #젠더의식부족 #성인지감수성부족 #성별고정관념**

[유형1] 의료인 여러분, 모두가 이성애자는 아닙니다 - 성소수자 의료경험 사례

[유형2] 21세기에 '처녀막(질 주름)' 못 잃는 산부인과

[유형3] “여자 발에 무슨 무좀이...?”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고정관념이 진료에 미치는 영향들

[유형4] “애 낳으면 병 낫는다, 결혼하면 병 낫는다” 여자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7. 기타**

[유형1] 국가 인구정책에 따라 변하는 #건강보험 적용 #비용

[유형2] 의료기구,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골육의자 #유방검사기계

**II. 변화를 위한 정책 제언 .....49p**

## 〈2020 여성 의료 경험 사례 수집〉

### I . 여성들이 병원에서 경험한 순간들

330여 명의 여성들이 직접 제보해주신 유형별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본문 중 진한 글씨 또는 밑줄은 편집 상 강조를 위해 표시한 내용입니다. 각 장의 끝마다 시민들이 병원과 의료진에게 바라는 〈변화를 위한 제언〉을 담았습니다.

# 1.

## #반말 #고압적태도 #권위적태도

〈병원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사례들〉로 의료진의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인 태도에 관한 사례가 많이 언급되었다. 여성들은 병원에서 ‘어리다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나 의료진으로부터 반말로 안내 및 진료를 받거나, 부적절한 호칭으로 호명되었다. 특히 10대 여성 청소년들이 겪은 병원에서의 무례한 사례는 ‘어린 여성’일수록 더욱 쉽게 무례하게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여성 환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권위의식을 가진 의료진도 많았다. 특히 의사에게 환자로서 궁금한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진료를 위한 대기 시간에 여성 환자의 몸을 노출한 채로 방치해놓는 사례들은 병원에서 여성이 ‘존중이 오가는 진료’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말해주고 있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지나치게 무례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겪은 여성(환자)들이 부당한 경험 이후에 “내 목숨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의사를 기분 나쁘게 했다간, 수술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갈 까봐(불이익이 있을까 봐)”, “문제적 태도를 가진 의사가 해당 질병에 대한 권위자인 것 같아 혹여라도 해를 입을까 봐”, ”마취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면 내 몸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문제제기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의사-환자 간의 위계로 인한 환자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완충할 수 다양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 환자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나 권위적인 태도는 환자가 호소하는 고통과 통증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졌다. 원인을 모를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 내원한 여성 환자들에게 ‘엄살 부리지 마라’거나, ‘그게 아픈 거냐?’, ‘검사 결과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피병 부리는 거 아니냐’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의료진으로 인해 여성들은 아픈 상황에 더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고통을 대하는 직업인 의료인들에게 환자의 고통에 대한 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 [유형1] “어디가 아픈데? 처치실로 가.” - 반말 진료

- ▶ 내과든 이비인후과든 어린 여자가 가면 반말은 기본입니다. 그건 그냥 봐준다고 쳐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조건 말을 끊습니다. “그냥 이 약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거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결국 다음에 다른 병원 가게 돼 있죠.
- ▶ 나이가 많은 의사였는데, 보자마자 반말로 ‘여기에 앉아’, ‘이건 해야겠네’... 제가 진료를 원한 부분은 치료도 제대로 마무리 되지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내원할 예정입니다.
- ▶ 정형외과 엑스레이 촬영 후 담당의사가 1년 전 촬영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그 사이 더 나빠졌다는 설명해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로 설명했습니다. 그 동안 왜 관리를 안했냐, 운동해야 한다, 등등 나와 친근함? 본인보다 나이가 어려보여서? 개인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고, 왜 반말로 설명하는 걸까요?
- ▶ 발가락 염좌로 엑스레이를 찍는데 담당 남직원이 저에게 “아니 이렇게, 이쪽으로”하며 반말로 지시하더니, “주머니에 핸드폰이 들어 있는데 괜찮냐” 묻는 말에는 “핸드폰은 저쪽으로 치우라”고 불쾌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환자가 50대쯤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존댓말을 쓰며 깎듯이 하는 것을 보고 차별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 ▶ 눈에 알러지가 생겨 안과에 방문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남성 선생님이셨는데 젊은 환자에게만 통명스러운 반말로 진료를 보시더라고요. “어디가 아픈데?, 인공눈물 처방 안 돼. 그냥 알레르기 약”
- ▶ 저희 엄마 수술하실 때도 느낀 점인데, 노인 환자, 특히 여성 노인 환자의 경우에 의사들, 또는 간호사 들이 반말로 “~~했잖아.” “~~해”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성 노인 환자를 “엄마”라고 부르면서요. 아마 친근감 있게 접근해서 환자가 말을 잘 듣게 하려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 그런 것도 아닌데도 보고만 있어도 매우 불쾌했어요.
- ▶ 70대 엄마의 주치의(50대)가 엄마보다 나이가 훨~씬 어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항상 친구처럼 반말을 합니다. 그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서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더군요. 병원 갈 때마다 항상 똑같은 그 태도 때문에 결국 병원을 옮겼습니다.
- ▶ 경남의 한 의원에서 겪은 일입니다. 의사가 반말을 하며 “왜 왔냐” 묻더니, ‘많이 걸어서 발에 물집이 생겼다’는 제 말에 대뜸 “취업을 해라” 합니다. ‘입가에 발진이 생기고, 갈라지고 튼다’고 하니 “다 그래~마스크 내려 봐. 약 처방해줄게. 처치실로 가.”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에 불쾌했던 경험이었어요.
- ▶ 겨드랑이에 표피낭종이 생겨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중년 남의사는 건성으로 한두 번 보더니 저한테 다짜고짜 반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표피낭종인데 만지만 말고 그냥 놔두면 돼/거슬리면 짜줄까?” 라는 식으로요. 처음 갔던 병원이고 초면이었는데도 반말에 건성으로 진료를 하니



불쾌했습니다.

### [유형2] “아줌마” “엄마” “OO야” - 호칭의 문제

- ▶ A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저에게 반말로 말하면서 계속 “아줌마”라 불러서 무척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 ▶ 임신 중단 수술을 받으러 산부인과를 갔는데 의사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 ▶ 진료실로 부를때 “○○야~” 하고 부르더라구요. 살짝 기분 안 좋았지만 나이든 분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진료 받고 나왔는데 저와 동년배의 다른 남자환자는 정중하게 부르더라구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구님”인가 “누구씨”인가 뭐 그랬을거예요.

### [유형3] 학생/청소년이 겪은 무례한 의료경험 사례

- ▶ 중학생 때부터 왜 그렇게 반말을 자연스럽게들 하시고, 질병명조차 얼버무리고 대충대충 넘기려 하는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까지 질병과 관련 없는 것으로 지적 받는 일에 지쳤습니다. 진료 중에 “어디 학교 다니냐, 자퇴했냐, 그럼 뭐 하나, 유학 다녀왔냐, 이제 뭐할거냐”는 질문이 웬 말인가요. 진료를 하는지 호구조사를 하는지. 5천원도 안 되는 진료비조차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 ▶ 학생 때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기분 나쁘게 반말로 말을 툭툭 내뱉더라고요.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주고 제가 말하는 증상은 듣는 건지 마는 건지 관심도 없어 보이고 진료를 정말 대충대충 보는 게 티가 났어요. 근데 부모님과 함께 갔을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어린 여성이라 그랬던 것 같아 불쾌했어요.
- ▶ 고등학생 시절 감기가 심하게 걸려 학교 후 학교 근처의 내과에 방문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피곤하다는 어투로 반말을 하면서(ex. 언제부터 이랬어? 빨리 병원에 왔어야지. 등) 진찰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기계적으로 약만 처방 해주었습니다. 진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느낀 이유는 코와 목에 증상이 있었는데 코나 목 한 번 보지 않고 약만 받았거든요.
- ▶ 고3 때 수업 받다가 아파서 학교 앞 이비인후과에 갔었어요. 거기 원장님이 40대가 넘는 남자 분이셨는데 제가 교복을 입고 있어서 그랬는지 만만했었나봐요.. 자기를 오빠라고 칭하면서 “오빠'가 약 줄테니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오빠라고 한 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자신을 오빠라 칭하며 반말도 계속 썼고요. 따로 몸을 만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주 불쾌했어요.

▶중학교 때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죽을 끓여야 해서 냄비를 젖다가 눈에 뜨거운 물이 튀어서, 병원에 간 김에 눈이 괜찮은지 조심스럽게 여쭙보았습니다. 종목은 달라도 일단 의료진이시니까요. 그런데 대뜸 "그래서 뭐? 치료해줘?" 라면서 남의사가 비웃더군요. 그 질문에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몇번이나 네? 하고 되물었습니다. 남의사는 계속 "그러니까 치료해주냐고?" 라면서 계속 이상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자기도 괜찮은지 잘 모르면서 어린 여학생이 질문한다고 거만하게 굴었구나 싶어서 헛웃음이 납니다. 나중에 보호자와 같이 갔을 때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 [유형4] “질문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 - 병원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원인을 알 수 없이 복통이 있어서 찾아간 병원에서 남의사가 배를 몇 번 눌러보고는 약을 처방해주길래 원인이 뭐냐고 물으니 “원인을 자기에게 물으면 어떡하냐,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아라” 하며 저를 다그치듯이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따지니, 자신이 화낸 것은 아니며 원인은 모르겠으나 큰 병원에 갈 정도의 증상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폐암 수술 전 주치의가 수술 과정 및 수술 이후 염려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는 데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무 불쾌했지만,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아버지의 수술에 영향이 갈까봐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겸손하게 들어야 하는 액션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환자인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검색한 내용을 말하면서 치료 과정에 대해 문의를 하니, 마치 의사인 자기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식으로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냄. 고압적인 태도에 무척 불쾌했던 경험이 있음.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동네에 좀 큰 정형외과를 갔습니다(2차병원) 의사가 굉장히 위압적이고 무례하게 저희 엄마께 “질문다운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한 제가 아직도 한심하네요. 진짜 저희 아빠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했을까? 싶습니다.

▶한 번은 몸살인줄 알고 참다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의사였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안 왔냐”고 저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당시 목을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서 아무 대응도 못했는데, 의사가 주먹으로 자기 책상을 계속 쳐서 너무 황당하고 무서웠어요.

▶내시경 및 내장 검사 후, “결과를 메모해도 되겠다” 물으니 의사가 자신은 “이런 게(?) 불편하다며, ”그냥 기억하면 되지 않냐“고 으박질렸다. 병원 측에 항의해 병원이 그 의사와 대면하게 했는데, 의사는 굉장히 고압적 태도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본인은 “의사로서, 정신과에 대해서도 배우기 때문에 나를 망상증 환자로 진단할 수 있다”는 헛소리까지 했다.

- ▶예전에 외과수술을 받았는데, 간호사가 나에게 “(의사)선생님에게 질문은 하지 마시고 듣기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했더니 열 받은 표정으로 변하더라고요. 환자가 자기가 받은 시술에 대해서 궁금하고 상태가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위압적인 분위기에 물어보기도 어려웠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 ▶아이가 열이 나서 휴가철이라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아이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의사가 진단할 때 잘 판단할 거라 생각해서, “휴가지까지 오기 전 몇 군데의 병원에서 어떠한 증세로 어떤 약들을 처방받고 이만큼 복용했는데, 오늘 밤은 열이 잡히지 않았다”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 이야기를 듣던 의사가 “의료인이예요? 보통 애 엄마가 뭘 이렇게 잘 알아?”라며, “판단은 자신이 한다”고 타박을 했다. 아이의 병명은 성홍열이었고, 항생제가 필요했는데, 그 의사도 결국 약을 잘못 줘서 응급실을 두 번이나 더 가야했다. “여자, 애엄마, 당신이 뭘 아냐”는 식의 태도로 그런 말을 실제로 하는 의료인이 생각 외로 많았다.
  
- ▶모 대학병원 피부과에 알레르기 문제로 검사를 하러 갔었는데, 피검사로 알레르기를 알 수 있다고 해서 피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비누로 씻기만 해도 알레르기가 나고 스킨로션도 제대로 못 바르는 상황이었기에 화장품 성분을 골라서 피할 수 없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남자 노의사가 “그걸 화장품 회사에 가서 물어보아야지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며 역정을 내네요. 아주 불쾌했습니다. 지금 다른 대학병원에 갔는데 피검사가 아니라 첩포검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 ▶설사를 해서 병원에 갔는데 지사제를 먹었다고 하니 의사가 대뜸 “지사제라는 게 있어요?” 라고 함. 내가 '정로환 같은 게 지사제 아니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사제라는 걸 처음 들어본다”고 “정로환이 무슨 약이냐”며 무안을 주더군요. 뭘 잘못 뒀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되지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비웃는 태도, 정말 불쾌했어요.
  
- ▶증상 설명이나 질문이 조금만 길어져도 의사가 쉽게 짜증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말을 끊고 단답형 대답만을 요구하거나 증상의 경중과 상관없이 증상에 해당하는 모든 약을 처방하는 기계적 진료 경험도 많습니다.
  
- ▶동네 내과에서의 경험입니다. 허벅지 내전근이 파열되어 동네 정형외과에서 CT 촬영을 하였으나 CT 사진만으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따라서 더 큰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근육이 속에서부터 파열되어 허벅지 바깥에 멍이 들었는데도 CT 사진상으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근육과 뼈의 구조)에 대해 가벼운 질문을 했는데 의사가 해당 질문에 답을 해주려 하지 않아(“내가 왜 그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하죠?”) 재차 요구를 해서(“제 몸이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의사의 마지못한 설명을 듣던 와중, 의사가 그 마지못한 설명조차 중단하고 “대체 내가 왜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지각과 인지능력이 상실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귀와 머리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제 몸에 대한 설명을, 그것도 정말 간단하고 지극히 필요하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도 상식 있는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먼저 제공했어야 마땅한 설명을, 그 의사는 제가 한 번 이상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또는 왜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 첫 아이 낳고 손목이랑 허리, 골반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정형외과 의사가 "미국 산모들은 출산한지 한 달도 안되서 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산모들은 너무 보호한다", "이렇게 많이 아픈 환자는 어디 가서도 대접 못 받는다. 모유 수유 중이니 물리치료나 받고 가라" 하더군요. 아픈 원인을 묻고 싶었지만 귀찮은 듯한 표정과 무례한 말투 때문에 묻지도 못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출산 후 손목이 아프다는 제 말에, 의사가 "내가 당신이 출산을 언제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따져물더군요. 기분이 나빠서 진료 취소하고 나왔어요. 의사들의 권위주의와 무례한 언행들 치가 떨립니다.

### [유형5] 수술 전 불필요한 노출과 안내 없음

▶ 산부인과였습니다. 자궁근종 제거를 위해 진료를 받았고 당일 수술이 가능하다길래 승낙했습니다. 산부인과 수술실에 속옷을 벗고 다리 벌리고 있는 기구에 누워 있는데 아무 설명도 없고 옆에 의료진도 없이 홀로 다리를 벌린 채 누워있어야 했고 수술실 근처는 저와 상관없는 의료진들이 왔다갔다 하며 저를 쳐다보았고 그 중 남자는 입구에 서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무 불쾌한 채로 시간이 지났고 어느 순간 의료진이 들어와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최소한 수술실 문이라도 닫아줬으면 덜 불쾌했을 텐데요. 두고두고 생각합니다. 십년 전 일인데도 너무 화가 나요.

▶ 수술하러 올라가서 마취제 맞기 전까지 몸에 이것저것 부착하잖아요? 근데 남자의료인이 제 가슴을 가리고 있던 수술복을 확 젖혀놓고 가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뭘 붙여야 해서 그러냐..?' 하며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다 노출된 상태라, 수치스럽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모르겠는 상태로요. 손에는 심전도 재는 장치가 집혀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어쩐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여자 선생님이 오셔서 쓱 덮어주시는 거 있죠?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럼 사실 가슴을 열어놓을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고 3때 맹장수술하러 들어가서도, 이번에 침샘협착수술하러 들어가서도 똑같이 그랬어요. 정말 필요해서 가슴팍을 열어놓고 간 걸까요? 그 가슴에는 아무것도 붙이지도 않던데...?

### [유형6] "그게 아픈 거예요?" 환자 말 믿지 않는 의료진

▶ 가정의학과: 몇 년 전 밤마다 이유 모를 기침이 연일 지속되었었는데, 하루는 날이 밝았는데도 갈비뼈 부근이 너무 아파 골절이 의심되었어요. 근처 병원에 가서 이유를 설명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달라고 했지만 "아직 젊은데 기침했다고 뼈가 부러질 리 없다"며 엑스레이 촬영에 동의 해주지 않는 거예요. 수차례 더 요구한 끝에 엑스레이를 촬영했고, 골절을 확인했지만 사과는 못 받았어요.

- ▶치과 치료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 아프다고 몇 번을 말하고 전화까지 했는데도 치과에서는 “예민해서 그렇다”며 참으라고만 했어요. 통증을 참은 지 6개월 쯤 되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잇몸이 붓고 아파서 재치료를 2달 받았어요. 사과나 보상은 받을 수 없었어요.
- ▶저는 생리통이 심합니다. 심할 경우 토하고 설사하고 온몸이 차가워지고 정신도 혼미한데 속이 안 좋으니 약도 못 먹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병원까지 갔는데 중년 남의사가 “생리통은 방법이 없다, 참아라, 그렇게까지 아플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먹는 약만 처방해 돌려보냈습니다.
- ▶내과에 가서 제 증상을 말했는데 의사가 “그게...아픈 거예요?”라며 저를 괴병환자 취급 했어요. 화가 나서 저는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와 집에 가는 길에 엉엉 울었어요. 저는 정말 아픈데 의사가 괴병 취급하니깐요. 그 아픈 증상이 지속돼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검사 다 받고, 그 증상이 더 심해져서 결국엔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첫 의사가 제대로 진료를 해줬다면 입원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 ▶음식을 먹기만 해도 토하고 설사해서, 병원을 가서 증상을 말했는데 청진기로 진찰하시더니 의사가 “별로 심각한 증상도 아니”라면서 과민성대장증후군 약 하나만 주더라고요 당연히 약은 효과가 없었고 며칠간 계속 죽 먹고 토하고 물마시고 설사하고 그랬습니다. 약 다 먹고 다시 가서 “이 약 효과 없다, 계속 설사하고 토하고 있다”니까 엄살 부리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닌데 신경 써서 그렇다고 “저 약이 효과 없을 리가 없는데~”라며 똑같은 약을 처방해주시더라고요. 다시 약 효과 없이 열흘 동안 고생만 하다가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했어요.

### 병원• 의료진에게 바란다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제언

○ 의료계내의 보수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는 곧 환자에게 이어진다고 생각함. 의사라는 직업이 권력이 아닌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바뀐다면 좋겠음.

○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사라지면 좋겠다. 그들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환자를 치료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의사의 일방적인 치료 지시가 아니라 환자와 치료 옵션을 상의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길 바람.

○ 환자를 자기보다 아래로 생각하는 일부 의사들의 행태가 문제적이다. 친절하 서비스, 감정노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순간 의료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심하면 의사와의 관계에서 환자는 약자로서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 피해는 환자들 개인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는 게 큰 문제다.

○ 전문가는 전문지식을 대상에 따라 쉽게 이해시키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최선을 제시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이 권력이 되고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권위적 태도는 심신이 아픈 환자에게 병원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진짜 전문가는 기술과 지식만 갖춘 자가 아니다. 그건 사기꾼도 갖추고 있다.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만나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인권적 태도로 자신의 전문성에 인류애가 녹아 있어야 진짜 존경받는 전문의학인이 될 것이라 본다.

○ 환자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정하고 친절한 의사가 좋다. 간호사도 마찬가지. 잔병으로 병원에 갔을 때 매번 같은 처치를 하느라 지겹고 힘든 것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한 명 한 명 친절하게 치료해 주는 의사선생님들도 많다. 그런 병원에 대한 정보, 경험 등이 더 활성화되어서 자신의 기준에 맞는 병원을 환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면 좋겠다.

○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알고, 병원에서 일하려면 환자를 어느 정도 무심하게 대해야 업무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도 이해는 한다. 이해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입장임에도 늘 입을 다물게 된다. 다만 환자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응급실에서도 입원실에서도 진료실에서도 환자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 환자들을 항상 보니까 무덤덤한 건 이해하지만 환자 입장에서선 아프고 무서운데 그 앞에서 너무 별거 아니란 식으로 무관심하고 태연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

○ 의사들이 자기 업무를 '진단과 치료'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고 설명은 부차적인 것으로 넘기는 태도가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의사의 역할인데, 자신이 판결을 내리고 심판하는 권위자로 행동하는 것이 불편함.

○ 의료진 편의 중심이 아닌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치료 과정이 되어야 함.

○ 여성이 호소하는 고통을 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함.

○ 환자의 고통, 특히 여성이 말하는 고통을 믿고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 2.

## #맨스플레인 받고 #닥터스플레인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시사상식사전에 의하면 맨스플레인이란, 남자(man)와 설명하다(explain)를 합친 단어로 “어느 분야에 대해 여성들은 잘 모를 것이라는 전제를 가진 남성들이 무턱대고 아는 척 설명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원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닥터스플레인’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다. 의사들은 잘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식인데 이것도 모르냐’는 태도로 귀찮은 듯 설명했고,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를 환자가 꺼낼 때에는 경청하거나 질문하기보다 여성 환자에게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큰 병에 대한 진단이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 의료진, 특히 의사들의 이러한 태도는 진료에 꼭 필요한 내용을 침범해 여성 환자에게 ‘살 좀 빼라’는 ‘고나리질(지나치게 아는 체하며,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성 환자를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듯한 이러한 태도는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으러 온 여성들을 의사들이 훈계하는 모습에서도 두드러졌다.

## [유형1] 의사도 모를 때 - 자기가 모른다고 환자에게 화내는 의사들

- ▶ **엄마의 경험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러 가셨다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년남의사가 "폐경은 언제 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엄마는 "~전쯤 완경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뭐라고요?"라고 물었고, 엄마는 다시 "요즘은 폐경이라는 말이 여성에게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단어라 완경이라고 쓴다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그런 말을 도대체 어디서 들었냐"며 화를 내면서 자기는 "평생 의사하면서 그런 단어 처음 들어본다"고 "사전에 나와있냐"고 역정을 내고 "학회에서도 안 쓰는 말인데 그런 걸 누구한테 배웠냐"고 수치심을 줍니다. 엄마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다"면서 그 자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셨습니다. 진료 직후에 차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완경을 검색해보니 사전에도 등록되어 있는 단어이고 기사나 블로그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였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해서 보여줬어야 하는데 남의사가 꾸짖듯이 화를 내서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 ▶ **산부인과에서 내가 '완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의사가 "폐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요즘 그런 말 안 써요"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폐경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했다.**
- ▶ **6-7년 전, 한국에 아직 생리컵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미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 생리컵을 부탁해서 구매해 사용해봤으나 착용법을 몰라 애를 먹었다.** 일단 넣긴 넣었는데 착용하던 중 생리컵 꼭지가 질 안으로 들어갔고, 힘을 주면 꼭지가 뿡 하고 나온다는걸 그때 몰라서 당황했다. 내가 자주 다니던 산부인과에 가서 생리컵을 빼달라고 했는데 의사가 생리컵이 뭔지 모르는 듯한 말투로 "아니 이런 걸 왜 여기에 넣고 그랬데"하며 빈정 섞인 반말로 이상한 사람, 업소여성 취급하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생리컵'이라고 얘기하자 "왜 그런걸 사용하냐"며 나를 혼내듯 말했고, 살짝 눌러서 공기를 뺀 다음 비틀어 빼는 게 아니라 핀셋으로 그냥 잡아당겨서 장기가 다 빠져나가는 줄 알았다. 그런 다음 의사는 내 허락도 없이 생리컵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친구 통해 미국에서 반입하고 몇 달을 기다려 어렵게 구매했는데 묻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길래 "왜 버리냐"고 하자 "그럼 이걸 다시 쓰게?"라고 말하는 의사. 기분 나빠서 다시는 그 병원에 가지 않게 되었다.
- ▶ **일회용 패드 사용시 외음부 피부발진 등의 이유로 월경컵, 탐폰, 면 제품을 같이 사용하는 중에 월경양이 너무 많아 산부인과 방문.** 나름대로 지난 3개월 간 월경컵을 사용하며 체크한 월경양을 말하자 의사에게 돌아온 답은 "월경컵을 왜 쓰냐"는 말.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너무 불쾌했다.
- ▶ **고양이 발톱에 살짝 허벅지를 찢린 후 허벅지가 어마무시하게 붓고 칼로 찌르는 고통이 생겨 내원했습니다.** 증상을 이야기했는데 의사가 저를 쓱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오래 앉아서 근무하시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하나면서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벅지가 엄청 붓고 미칠 듯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나름 사전에 찾아본 정보를 토대로 파상풍이나 이런 감염 질병의 가능성은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서 고름이 차거나 빨갱게 부어오른 각종 파상풍 사례



들을 보여주며 “찢린 상처가 지금 이래요? 아니죠? 정 불안하시면 항생제 연고 처방해드릴게요” 하더라구요. 불쾌했지만 제가 예민한거려니,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밤은 통증으로 잠을 전혀 못자서 다른 병원에 내원하고 항생제를 처방받다가 나흘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서 3차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온갖 피검사와 CT촬영 끝에 ‘고양이할퀴병’이라는 병명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약을 먹어야했고 약간의 후유증이 남았어요.

▶ 무릎 뼈에 생긴 희귀질병에 대해서 방문한 정형외과마다 의사들이 “모르면 모른다” 말하지 않아서 병을 키우게 되었다. 모르면 3차 병원이라도 가보라고 하던가! 급기야는 무슨 병인지, 증상인지 설명도 못하면서 100만원이 넘는 치료를 권유하길래 내가 알아서 수소문해 의뢰서를 받아 3차 병원으로 가 병명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3년이 걸렸다.

## [유형2] “상식인데 모르시는 것 같으니 설명해드릴게요” - 환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

▶ 허리가 아파서 척추전문병원을 갔는데 거기 있던 남자 의사가 “생리통이랑 구분은 하시죠?” 라는 너무 가벼운 투로 비꼬듯이 말해서 기분이 너무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제 나이 23살에 생리경력(?)만 벌써 몇 년인데, 생리통이랑 허리통증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 피부과에서 “알레르기로 피부가 일어나는 게 심해서 왔다”고 증상을 얘기하자, 의사가 “알레르기란 단어가 잘못된 것”이라며 진료는 하지 않고 내내 다른 단어의 정의에 대한 강의를 한참 하더니 설명 하나 없이 약만 처방해주고 진료를 끝내버렸다.

▶ 일단 기본적으로 반존대를 사용하는데다가, 처방하는 약에 대해서 질문하니 “상식인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해드릴게요.”라며 설명해줌.

▶ 산부인과 갔을 때 검사 결과를 보는데 엄마가 같이 들어가서 들으려고 하자 의사가 “어린 아이도 아니고, 병원은 혼자 오는 겁니다”라고 얘기함. 그건 환자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지 의사가 가르칠 건 아니지 않나요?

## [유형3] “살 빼셔라” - 갑자기 혹은 들어오는 ‘고나리질’

▶ 출산을 한 후에 산부인과에 재방문해서 수술부위를 초음파로 보고 있는데 의사가 “이거 이거 다 지방이라 빼야 해요” 라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꼈고, 의사가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혈(월경)을 6개월 넘게 하지 않아 산부인과를 방문하였으나 증상을 말하자마자 별도의 질문

이나 검사도 없이 체형만 보고선 “살찐 게 원인”이라며 검사를 못하게 함. “그래도 검사를 해 봐야하는게 아니냐”라고 하니 “돈 낭비”라며 내가 아닌 함께 온 부모님께 남자친구니, 생활습관이니 관리니 나에 대한 사적인 질문을 하며 “자신이 아는 운동센터강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거절하고 다른 병원을 또 찾아 가야했다.

- ▶ 진료실에서 의사가 다짜고짜 내 몸무게를 묻더니 “살이 너무 쪼다”고 “살이나 빼라”고 함. 감기로 방문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 ▶ 원래 핏줄이 잘 안 나오는 체질인데, 수술 때문에 채혈을 하는데 간호사가 핏줄이 안 보인다고, “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살 좀 빼라”고 말했다. 나중에 간호사 지인에게 물어보니 화를 내며 “그런 게 어딴냐, 본인이 실력이 없는 거”라는 얘길 듣고 내가 기분 나빴던 게 정상이었다는 걸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다.

#### [유형4] 사후피임약을 왜 ‘혼나면서’ 처방 받아야 하나요?

- ▶ 성관계 중 콘돔이 찢어져 바로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러 갔습니다. 피임약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용 자체가 처음이라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의사분께 피임약 부작용에 대해 여쭙보았는데, “그건 약 안에 써 있구요. 피임약 먹고 부작용 있는 게 안 먹고 임신하는 것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낫지 않겠어요?”라고 하는 겁니다. 약 안에 기술되어있으니 의사로서 책임을 안 하겠다는 건 물론이고 피임약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안정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핀잔과 겁을 주는 행태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 ▶ 사후피임약 처방을 위해 집 근처 약국에 갔습니다. 처음이었고, 시간이 촉박했기에 약사에게 어느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바로 옆 건물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카운터의 젊은 여자 직원이 제 모기 같은 목소리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말투에 특별하지 않게, 덤덤하면서도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층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갈 차례를 맞았습니다. 노년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 물었고, 저는 다시 조심스럽지만 당당하게 사후피임약 처방을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표정이 싹 바뀌고 굳어서는 뚫어져라 모니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말투는 사무적으로 변했고 그는 제 눈을 일부러 피하면서 ‘대화하기 싫다’는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차가운 정적을 뚫고, 제가 약과 관련된 질문을 하자 “그건 산부인과에 가서 물으시라” 답했습니다. 본인에게 약을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약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을 텐데도 극도로 저라는 사람 자체를 꺼리는 기분이었습니다.
- ▶ 몇 년 전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은 사후피임약처방전 들고 간 약국에서 여성약사분이 절 혐오하듯 쳐다봤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주임 같은 태도였습니다. 그 약사 분은 저에게 얼마나 자주 그 약을 처방받는지 묻지도 않고 대뜸, “자주 복용하면 안 좋다”고 훈계를 하셔서 “아 네~” 하고 말았지만 오랜 시간 지나도 화가 나네요. 이런 일로 흑역 상처받는 사람들은 사후피임약 처방

을 꺼려하겠구나 싶었습니다.

### 병원• 의료진에게 바라는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제언

○ 저혈압과 두통도 심한 편인데, 저혈압과 두통도 늘 '이유 없음', '스트레스' 라는 답변만 듣고, 너무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에 산부인과를 다녀오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는 여성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의사들이 그 이유를 못 찾아서 별다른 병이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혈압의 경우도 “물 많이 마셔라, 소금을 먹어라” 등의 조언만 들었다. 여성들에게 흔한 증상들에 대한 연구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 의사들은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만을 찾겠지만, 환자의 경우 '어지럼증'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고민해주면 좋겠다.

○ 내원한 환자가 어떻게 다치게 되었고,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이야기했는데도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하며 증상과 상관 없는 생활 습관을 지적하는 행태가 없어졌으면 함.

○ 서비스직 종사자로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마주친다는 게 쉽지 않은 걸 앎. 하지만, 의료종사자로서 당연히 환자들은 모르는 것도 많고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다 보니 (병원에서 의료진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예의를 갖추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환자를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면 좋겠다.

○ 남성 의사들이 여성 환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 환자를 갱생해야할 대상으로 다루거나 환자를 계도하는 자세가 개선되어야 함.

○ 어떤 질병에 따라 어떤 부작용, 주의할 점이 있는지 그냥 얘기해주고 그걸로 개인적인 질문거리를 더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음.

○ 치료와 상관없는 이야기(무례한 오지랖, 사족)를 덜 듣고 싶다.

○ 아픈 곳에만 집중해 주면 좋겠다. 내가 역도를 해서 다친 게 제 성별 때문도 아니고, 다이어트에 관한 의사의 의견을 들으러 간 것도 아니니까. 불필요한 의견은 듣고 싶지 않다.

# 3.

## #설명부족 #안내부족 #어려운 설명

사례 수집 결과, 많은 여성들이 병원에서 진료 전후에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 전에는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검사에 대해 어떠한 검사이며 왜 이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진료실에서도 자신의 질환과 병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나 설명을 받지 못한 채 “이상 없으니 가라”, “약 처방 했으니 먹어라”는 등 부실한 진료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병원에서 연구 목적으로 환자의 정보를 활용하려 하거나, 인턴 등 예비 의료인이 동행하여 관찰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례, 환자의 몸에 치료기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환자에게 아무런 안내나 알림 없이 ‘혹 들어가는 바람에’ 긴장과 놀람 속에 진료를 받은 사례 등 진료 과정 전반에 걸쳐 ‘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과 ‘동의 구하기’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생략된 진료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유형1] 진료 전에: “어차피 해야하는 거니까 그냥 하세요”

- ▶ 자궁초음파 검사를 항문 또는 질로 하는데 병원에서는 이 검사법을 성관계 유무로 정합니다. 환자는 어느 쪽으로 검사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은지, 왜 검사법이 나뉘는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고요. 처녀막 손상 우려 때문이라는 더러운 이유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 ▶ 월경을 2주나 해서 일요일에 문 연 병원을 갔는데 당직의가 하필 남성밖에 없었어요. 초음파 전에 문진하는데 “최근 마지막 성관계일”을 묻더라구요. 왜 이 질문이 진료에 필요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근이라는 범위 안에서는 없어서 “없다”고 했더니 “태어나서 여지껏 한번도 (성)경험이 없냐”고 되묻더라구요. 좀 불쾌했는데 일단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초음파검사를 하는데 진짜 너무 거칠게 했고, 자궁경부암 검사도 같이 하자면서 했는데 검체 채취도 너무 막 하는 것 같아서 아프기도 하고 엄청 짜증과 화가 막 났었어요. 초음파검사 마치고 내막 조직검사를 하러 수술실 같은 곳으로 갔는데, “수면마취를 한다”고만 들었지 조직검사 하는 방법이나 검사 후 주의사항 등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 듣고 했어요. 조직검사까지 끝내고 집에 와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내막 조직검사 방법도 몇 가지가 있었고, 내막을 긁어내는 형태의 조직검사의 경우 유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검사 결과 나오는 날까지 좀 불안하게 지냈었어요.
- ▶ 산부인과에서 결혼 유무나 성관계 유무를 묻는 것. 질초음파 등을 할때 성관계 유무에 따라서 질 초음파를 할지 항문 초음파를 할지 정한다는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질 초음파는 이런 이런 것이고, 항문 초음파는 이런 이런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고 뭘 하실래요?” 라고 물어봐도 되는데, 매번 성관계 여부를 물어본다. 또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대기실에서 물어보거나 하는 것도 불쾌함.
- ▶ 어머니가 유방암 검사를 받으셨는데, 어머니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음. 의사로부터 어떤 검사 종류가 있는지,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들었다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하심. 갱년기 치료를 위한 호르몬제를 처방 받으려면 반드시 유방암 검사를 해야 해서 병원 사무원이 “어차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냥 하시라”는 식으로만 설명했다고 함.
- ▶ 의료정보가 내 것이 아니라 의료인들의 것인 양 다루어지는 것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특이한 사례라서 진단이 꼭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듯 말하면서 반복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불쾌했어요. 논문 쓸 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검사하는 티를 그렇게 내면서도 그 설명을 제게 하진 않았죠. 치료와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왜 당사자에게 설명하지 않나요?
- ▶ 충치치료를 받으러 치과에 갔는데, 치료 후 이를 씹우는 재질에 대해서는 길게 상담했지만 충치 치료 시 치아 삭제량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치료 중 느낌 상 치아삭제가 예상보다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확인할 길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궁경부암 진단받으라고 우편물이 와서 ‘모두 해야 하는 것인가 보다’ 생각하고 갔어요. 산부인과에 처음 가는 거라 검사용 치마 갈아입는 방법을 잘 몰라 찢절매는데 “빨리 나오라”고만 하고, “어디에 어떻게 앉으면 되는지” 계속 질문하니까 귀찮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자궁경부암 검사는 삽입 성경험이 없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더라고요. 병원의 잘못은 아니지만, 공단에서 좀 미리 알려줬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짧은 반바지를 입고 물리치료를 받으러갔는데 너무 불편해서 “혹시 갈아입을 옷이 없냐”고 물었는데 남자치료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아 갈아입으시게요?” 라고 말하더니 “그럼 미리 좀 갈아입으시지”라며 옷을 꺼내주시더라고요. 전 갈아입을 옷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말이죠.

## [유형2] 진료 중: “자세한 건 유튜브 영상보세요.” 부실한 진료

- ▶질염과 생리불순으로 산부인과에 갔다. 하의를 벗고 의자에 누워 다리를 벌리고 하는 진료 기본자세를 하고 대기 중에 남의사가 불쑥 말도 없이 질 안에 손가락을 쑤셔 넣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는데 사과도 없이 “힘 빼라”고만 통보 후 계속 진료함. 후에 생리불순 이유를 찾으려 초음파도 했는데 막대 같은 기계를 또 불쑥 쑤셔 넣고 지 혼자 “음... 배란 안 된 흔적이 많네” 하고 끝냄. 이유 물어봐도 안 알려 줌.
- ▶치과 치료 중이었는데, 얼굴 위에 천 덮어놓고 '뭘 하겠다, 어찌하겠다'는 말도 없이 주사 놓고 찢고 갈고 어찌고저찌고 함.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으니 몸이 예상할 수 없어 매번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 긴장이 되었다. 망치 든 의사 앞에 고깃덩어리처럼 누워있었던 것 같아 기분이 아주 불쾌했음.
- ▶심장초음파 검사 후 담당의가 결과를 설명하러 와 놓고 한다는 말이 “어차피 설명해도 잘 모르실텐데 아무튼 이상 없습니다.”
- ▶월경양이 많아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검사 후 의사는 근종의 위치 상 제거는 어려우니 적출이나 미레나 사용을 권하며, 곧바로 병원 방문 일정을 정하려고 했다. 정작 나에게 필요했던 정보인 미레나 삽입시 겪을 수 있는 상황 설명이나 미레나 삽입 후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 출혈 기간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피부발진이 심해 패드형 용품 대신 삽입형 월경용품을 쓰는 나로서는 미레나 삽입이 쉬운 결정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질도 없었다. 오로지 삽입 시술이 예스인지 아닌지 선택권을 던져놓고 결정을 돕는 정보는 아무것도 주지 않음.
- ▶종양이 생겨 병원을 방문했다. 의사에게 내 종양크기에 대해 물어보자 의사가 “이 병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 나오는 영상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임. 유튜브 보라는 처방 내릴 거면 굳이 환자가 병원을 올 이유가 있나요?

- ▶ 2년 마다 해주는 국가무료건강검진 받으러 2차병원에 갔었는데 산부인과 진료는 산부인과 가서 받는 게 낫다고 하셔서 산부인과를 갔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사진 찍을거냐 어찌구 이해할 수 없는 걸 물어보고 나중에 염증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검사비가 십만원 정도 나왔는데 검사 결과는 종이로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뭘 검사한 건지 아직도 잘 몰라요.
- ▶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 어딜 가나 추가적인 정밀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검사를 진행하거나, 증상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약 처방했으니 먹어보시라”고 하는 경우는 아주 많았음.
- ▶ 목 디스크 증상이 있어서 정형외과를 두 군데 방문했는데 한 곳은 너무 설명도 없고 간단하게 말해줘서 약만 먹으면 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함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의사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불쾌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정형외과는 설명은 자세히 해주어서 좋았지만 불필요한 비급여 검사를 권유해서 별로였어요.
- ▶ 꾀매고 난 후 찜질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다음 내원에 “지난 번에 설명을 못 들었는데, 얼음찜질하고 심장보다 높게 해서 자는 것이 맞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며 깔보듯이 말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 ▶ 여성기 질환에 대한 막연한 처방들이 화가 나곤합니다. 검은 냉이나 냉 과다, 성기 가려움 및 통증에 대한 답으로 어느 지역 산부인과를 가도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성 질염”이란 아주 답 없는 답을 받고 진료비도 왕창 깨져서 항상 신뢰가 안 가요.
- ▶ 제가 가진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환자분이 뭘 모른다.'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모르니까 알기 위해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할 때 듣지도 않고서 무관한 검사들을 받아야 한다고 권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상 없으시다’고 진료가 끝나버려요. (예: 몸의 부종이 심하고 간수치가 비정상적이었음에도 추가로 몇 개의 검사를 한 다음 이상 없음 소견 받았어요.) 항생제·진통제·소염제 처방이나 좀 해주고 말 때도 있죠. 저를 돈벌이 정도로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군요.
- ▶ 고혈압 등 장기 복용하는 약을 타러 갈 경우에는 혈압재고, 다시 약 처방하는 게 다입니다.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네요. 성의 없는 태도에 항의했다가 대판 싸운 경험이 있어요. ‘여기가 외국인 줄 아느냐, 내가 당신 주치의인줄 아느냐, 주기로 약을 타러오니 약만 받아 가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의사가 화를 내서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병원• 의료진에게 바란다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제언

○ 의료계 종사자분들도 사람이기에 매번 친절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환자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물어봤을 때는 의무를 다해 진지한 태도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

○ 진지한 태도로 성심성의껏 수술 과정과 수술 후를 설명할 것. 그래야 의료진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의 힘으로 회복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것 같다.

○ 진료 매뉴얼을 생성하는 등 환자가 제공받아야할 최소한의 진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환자들이 알 수 있게 공지되면 좋겠다.

○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하고,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말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초음파나 조직검사 등을 할 때도 불편함을 최소화해주려고 노력하고, 검사기구가 들어가면 ‘들어 간다’, ‘채취 하겠다’ 이런 말들도 좀 했으면 좋겠음.

○ 병원에서 입원을 하면 모든 투약, 모든 주사 치료 전에 항상 내 이름과 나이를 두 번씩 확인하는 프로토콜이 지켜지는 것처럼, 모든 치료 전에는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범위가 좀 더 명확하게 가이드 되어 지켜졌으면 한다. 의사에 따라 치료에 대한 설명, 약 처방에 대한 설명이 너무 차이가 크다.

○ 환자가 자기 질환에 대해 궁금한 것은 당연한데 질병이나 치료 과정에 대해 너무 설명이 부족하고 불친절함.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 질문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면 함.

○ 의사들에게 페미니즘 교육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의료 인력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 환자가 자유로이 질문하고 답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함. 마치 기계를 다루듯 환자를 대하는 것 같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30초, 1분 진료가 사라져야할 것 같다.

○ 아무리 가벼운 진료더라도 진료는 진료답게 진행하고, 정확한 병명과 치료법, 약 등 환자가 진료 받은 내용 전체를 정리한 진단서를 진단마다 의무로 주었으면 함.

○ 환자의 통증 정도나 의심 소견을 신뢰하고, 앞으로의 진료나 처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 4.

## #과잉진료 #미용시술 권유

의료의 영리화에 따른 과잉진료 사례들도 다수 수집되었다. 여성들은 피부과, 산부인과, 동네 의원에서 ‘건강-미용’ 등 많은 이유로 미용시술을 권유받았다. 시민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가장 밀접하게 뒷받침해주어야 할 의사들이 ‘해서 나쁠 것 없다’, ‘보험 적용 되는 검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있었으며, 특히 다수 언론보도와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연령·결혼·출산여부에 따라 자궁적출술이나 제모시술, 성기 성형 수술을 권하는 병원이 많았다.

[유형1] “환자분, 보험적용 검사만으로는 부족해요.” - 과잉진료

- ▶ 주변 중장년여성들 경험을 들어보면 자궁 관련해서 질환이 있을 경우에, 자궁적출을 너무 쉽게 권하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기혼유자녀여성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미 출산했다는 이유로 쓸모없는 기관으로 여겨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자궁적출한 기혼유자녀 여성이 생각보다 많은 거 같아요.
- ▶ 비수술적 호르몬치료중입니다. 제가 임신출산 계획이 없다고 하니 병원에서는 바로 자궁적출수술을 권했습니다. 전신마취와 장기 적출이라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여성에게 임신/출산 이외에 다른 건강 문제나 통증은 의학 분야에서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질환은 자궁내막증과 선근증인데 이 질환을 앓는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학적으로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아직도 의학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여성을 아이를 낳기 위한 존재로만 보고 있다는 현실을 몸소 느끼고 많이 슬펐습니다. 여성의 통증에 좀 더 귀 기울이고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 ▶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치위생사가 스케일링을 한 뒤 사진을 찍고 충치 치료에 대해 설명하더니 치아 10개 이상에서 약180만원 건적의 치료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다른 치과 두 군데에 가보니 1개 치아만 치료가 필요하고 다른 치아는 두고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함. 과잉진료가 의심됨.
- ▶ 여드름이 너무 커지고 붓고 아파서 압출하러 피부과를 갔는데 크게 문제없는 다른 부위까지 레이저 시술 받았고 전체적으로 박피하는 시술을 권유 받음.
- ▶ 어머니 경험을 대신 제보합니다. 어머니가 미주신경실신으로 쓰러진 후, 비타민주사를 맞아보라는 권유를 받아 지역의 동네 작은 의원을 방문함. 미주신경실신으로 쓰러진 적 있다고 하자 의사가 "주사 후에 원장실로 오라" 해서 갔더니 영문으로 된 두꺼운 서적을 펼쳐놓고 "미주신경실신은 여기 몇 번 목뼈 때문"이라며 어렵고 장황한 설명을 하더니, "마우스피스를 맞춰야 한다.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되는데, 증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120만 원 짜리로 하라"고 강권함.  
거절해도 집요하게 권유하는 것이 이상했는데, 허리가 아프거나 다른 곳이 아프다 해도 다 마우스피스를 권유한다는 걸 알게 됨. 여기는 시골이라 병원도 몇 개 없고,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의사 말이니까' 속는 것 같아도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큰돈을 날리게 됨. 평소에도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 더 가기 꺼려짐. 작은 시골 지역일수록 이런 작은 의원의 부당한 과잉진료 사례 많을 듯.
- ▶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 찾아갔을 때 의사가 우울증약을 먹으면 식욕증진이 되니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감퇴 약을 무조건 넣기 위해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콜중독 진단을 내리려고 함. 다이어트를 원치 않는다고 하자 "예뻐지면 나쁠 것이 없다"며 강제하여 약을 추가함.

- ▶ 산부인과에서 보험 적용되는 자궁경부암 검사로는 부족하다며 자꾸 비싼 검사를 무리하게 권유. 경구피임약을 먹고 있다 하니 루프나 미레나 같은 시술을 권하시더라고요. 물론 권하는 것까진 저도 관심이 있던 터라 이해가 갔지만 너무 매번 요구하셔서 그 산부인과에 가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간단히 질염을 체크하러 가거나 부담 없이 진료를 받으러 가고 싶은데 무슨 영업사원처럼 이것저것 권유하는 게 거절하기도 힘들어 산부인과 고르는 데 애먹고 있습니다.
- ▶ 20대 초중반 때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인유두종(HPV)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상 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제 도래에 이런 경우는 “산부인과적으로 흔치 않다”면서 엄청 겁을 주더라고요. 제 성생활에 대해 이래저래 말하면서 제가 겁먹고 힘들어하니 종교를 권유했습니다. 그 후에 자료 다 뽑아들고 종합병원의 부인과에 가보니 과잉진료였던 것 같다고 해서 너무 황당하고 불쾌했어요.

## [유형2] 산부인과 ‘이쁜이수술(소음순 성형수술)’ 권유 사례

- ▶ 산부인과에 방문했는데 모양과 색을 이유로 소음순 수술을 권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상태였고, 스스로도 신체 형태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권유를 거절했지만 “모양과 색을 알고 있냐”며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해서 불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 질염 치료 때문에 어렵게 여의사 분이 진료하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소음순 미용 수술을 권유받았어요. 거절 했더니 “모양이 예쁘지 않다”며 “예쁘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차 괜찮다고 했더니 의사 말이 “본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의사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어서 더 화났습니다.
- ▶ 산부인과 진료 중에 의사가 갑자기 “음순이 좀 큰 편이니 덜렁거리는 데를 좀 잘라내서 이쁘게 하면 어떨겠냐”고 하더군요. “염증 문제에 도움이 되냐, 의료적으로 필요한 거냐” 물으니 그건 아니래요. “그럼 됐다”고 “불편한 거 없다”고 하고 거절했는데, 여자의사라 그나마 그 정도로 지나갔지 남자였으면 훨씬 화가 났을 것 같아요.
- ▶ 다른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뜬금없이 “소음순의 모양이 이상하다”고 하며 수술을 권유해 불쾌했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도 야동을 많이 보다보니 자신의 성기 모양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수술을 한다”는 둥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길래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집요하게 설득하다가 “남자친구가 있냐”고 하더니 있다고 하니까 그제야 멈추더군요.
- ▶ 자궁플립(종양) 때문에 갔던 산부인과에서 갈 때마다 간호사가 소음순 모양을 지적하면서 소음순 성형수술을 권해서 너무나너무너무 불쾌했던 경험이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사가 진찰하기 전, 후에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인 것처럼 은근슬쩍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 병원엔 젊

은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올 때마다 소음순 성형수술을 권할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 ▶ 산부인과에서 수술 동의서 같은 거 쓸 때 '이쁜이수술' 체크하는 란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게 참 불쾌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기혼여성분들의 경우 다른 수술하면서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 ▶ 질염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부인과에 가봤습니다. 워낙 '굴욕 의자' 때문에 치욕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어 고민하다가 증상이 너무 심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질염 때문에 갔는데 관련된 설명은 없이 진료를 보면서 "자궁입구가 많이 헐었다, 소음순이 짝짝이인데 수술해라. 요즘은 확실히 많이 하고 그게 유행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진료 중이라 별 말 안 하고 상담실로 나왔는데, 제 소음순 모양을 그리면서 또 똑같은 말로 소음순 수술을 권유하더군요, 물론 '질염' 예방에 좋거나 의료적 목적으로 그랬으면 아랑곳하지 않았을 겁니다. 집에 와서 수치스러워 많이 울었고 병원 게시판에 따졌는데 2번의 글 삭제가 있었으며 잘못도 없는 상담실장한테만 사과를 받았습니다. 여자 질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의사 때문에 이전 산부인과가 방문이 더 불쾌해지고 싫어졌어요.
- ▶ 23살 때인가 관계했던 파트너가 요도염에 감염됐다고 해서 저도 확인 차 병원에 갔어요. 산부인과는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진료를 보고 나서 의사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요. 이건 한 일주일 약 먹으면 낫는 거고, 근데 지금 필요하신 건, 보니까 대음순 크기가 너무 커요. 이게 크면 뭐 바지나 속옷에 끼면서 냄새가 날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잘라내는 수술이 있어요. 이게 강남에서 하면 90만원인데 지금 오늘 하시게 되면 60만원에 해드릴게요."라는 말을 대본 윙듯이 줄줄 하는 거예요. 감염된 바이러스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고 계속 할인을 얘기만 하는 의사가 기가 막혀서 얼굴이 달아올랐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이 때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다 먹고 나서 다시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변이되어서 암이 되기 직전야 병원에 갔고 결국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알려줬더라면 제 몸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많이 해요.

### [유형3] 산부인과 제모 시술 권유 사례

- ▶ 임신중단 수술을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수술이 끝난 후 다음 날 '굴욕의자'에 누워 검사를 받고 있는 저에게 의사가 "체모, 음모가 지저분하다"며 레이저 제모를 권하더군요. 저는 병원에 중절 수술 후 검사를 받으러 간 거지 확실히려 에스테틱 샵에 간 게 아닌데도요. 의사는 수술 후 회복에 대해 '괜찮다' 정도의 한 마디를 끝내고 부터는 '제모를 왜 하지 않냐', '여자는 제모를 깔끔히 해야지' 등 계속 제모에 대한 말만을 했습니다. 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웃고 넘겼지만 그것은 검사 중 제 몸에 어떤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만 제기를 할 수 없던 것입니다. 수면마취 되어 질과 자궁을 말긴 채 수술하는 동안 의사는 어떤 생각으로 수술을 했을지, 제가 남자였어도 이런 말을 들었을지.

온갖 생각이 들며 수치스러움이 밀려와 수술 후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검사를 받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회복에 필요한 3회차의 약 처방 또한 1회차 밖에 받지 못한 것입니다. 몸과 의식을 모두 마취시킨 채 질과 자궁을 맡긴 환자를 비웃듯 대하는 의사는 어떤 윤리의식을 갖고 있던 걸까요.

- ▶ 산부인과에서 진료 중에 의사가 “털이 상당히 많다”면서 “여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털이 많으면 위생상 안 좋다. 우리 병원에서 마침 레이저 수술하니까 받고 가라”고 함. 간호사도 뚫어져라 쳐다보며 “레이저 받으신 적 없으세요?” 라며 계속 함께 권유함.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너무 불쾌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유형4] “하시는 김에 같이 하시죠.” - 기타 미용시술권유 사례**

- ▶ 잇몸이 시려서 치과에 가니 “잇몸이 나이에 비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거기까지는 진료였는데, 갑자기 제 아랫니를 교정하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치료목적으로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미용목적이라네요. “방금까지 저 잇몸 건강 나쁘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저 웃어요. 잇몸 나쁘단 이야길 방금까지 했으면서 갑자기 미용목적의 교정을 권유해서 어이없었어요. 항상 믿고 가던 곳이었는데 급격히 신뢰가 떨어지더라구요.
- ▶ 피부과에 점 빼러 갔다가 턱을 깎으라고 강요받은 기억, 라식 수술하려고 안과에 갔다가 쌍수를 권유받은 기억 등 미용수술을 강제하려는 권유는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병원• 의료진에게 바란다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제언**

- 진료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받고 싶다.
- 산부인과에서 자꾸 온갖 검사나 질 세정제, 유산균 등 판매 권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산부인과, 피부과에서 무리하게 과잉진료 권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여성이라면 무조건 미용적인 목적의 치료를 원할 것이라는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

# 5.

## #성추행 #불필요한\_신체접촉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사례도 상당수 제보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너무나 불쾌했던 경험’으로 여성 개개인에게 쌓여있던 사례들은 유사한 사례들 속에서 특정한 경향을 띄기도 했다. 산부인과에서는 진료를 빙자한 언어적 성희롱이 자주 일어났으며, 이비인후과에서 의사가 진료 의자를 지나치게 바짝 당겨 의사의 다리 사이로 환자와 접촉한 사례가 단골로 등장했다.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이나 산부인과, 청진기 진료 시에도 치료와 상관없는 불쾌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신체 노출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외에도 의료진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사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진료를 핑계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요구하는 등 범죄에 준하는 일들이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어 여성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참고] 진료 과정 중 일어난 성희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 [유형1] 불쾌한 신체접촉 사례

### #이비인후과 #진료의자

- ▶ 고등학생 때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의사가 “귀를 보게 가까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가까이 갔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 절 끌어당겨서 그 사람이 의자에 다리 벌리고 앉아 있는데 그 다리 틈에 제가 끼어있는 지경이었어요. 좀 떨어지려고 하니까 제가 앉아있던 바퀴 달린 의자를 다시 끌어당기던 징그러운 웃음이 10년이 지나도 생각나네요.
- ▶ 몇 년 전 비염 진료를 위해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여러 번 갔던 병원이라 별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진료의자에 앉은 제게 의사가 다가와서 코를 살펴보는 찰나, 제 무릎에 의사의 성기부분이 닿으면서 물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피할 공간도, 피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그 상황 그대로 진료를 끝냈습니다. 오래 다닌 병원이었는데, 그 뒤로 다른 이비인후과로 옮겼습니다.
- ▶ 이비인후과에서 코 질병 관련으로 이비인후과 특수 의자에 앉아서 진료 받는데 의사가 본인의 성기를 내 무릎에 계속 비볐음. 진료 중에 급작스럽게 행해져서 뭐라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이후엔 그 병원에 안감.
- ▶ 20년 전이긴 하지만 제가 아직 어린 학생이었을 때 찾아간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 코와 입을 본다고 하며 진찰을 하는데 본인의 무릎이 제 사타구니 쪽을 터치하면서 과하게 붙어서 밀착 진료함.

### #정형외과 #물리치료

- ▶ 정형외과에 가서 다리 엑스레이를 찍는데 몸을 돌리라고 했어요. 당시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 칭해도 될 정도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찍어주셨는데요. 다리 쪽을 찍는데 허리 골반 쪽을 자꾸 만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몸을 돌리려고 제 겨드랑이 쪽을 잡으셨는데 손을 뺄 때 가슴을 쓸데군요. 누르면서요. 그게 두 번 정도 있어서. “제가 할게요.” 하니까 머쓱해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찔리셨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너무 불쾌해서 계산할 때 말했더니 딱히 사과한 마디 못 받고 나왔습니다. 진료도 제대로 못 받았고요.
- ▶ 직업 특성 상 허리와 어깨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편이라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통해 물리치료를 자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는 10명 중 9명 꼴로 남성이었고 이중 대부분이 물리 치료 중에 과도하게 엉덩이 부분을 오래 만진다거나 몸을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치료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여성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을 때에는 느낄 수 없었던 불쾌한 주물거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병원을 바꾸어도 계속되는 불쾌한 경험에 한 번은 어머니를 동석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조차 남자 물리치료사는 엉덩이 골부터 둔부 전체를

움켜잡고 제 엉덩이의 생김새를 설명하며 손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주물거렸던 경험이 너무 불쾌해 이후로는 물리치료를 잘 받지 않아요. 항의를 해도 “치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피하는 것을 제외하고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우울했던 기억이 몇 해가 지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 ▶정형외과에서 상처를 꿰맬 일이 있었는데 꿰매기 전 엑스레이를 찍는데 옆으로 돌아주세요, 발목 세워볼게요 등 요구에 잘 응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 기사가 불필요하게 엉덩이 쪽을 만져서 불쾌했었습니다.

## #산부인과 #성추행

- ▶산부인과에서 겪은 일입니다. 늘 여의사를 예약하고 갔으나 그 날은 갑작스레 급한 수술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대기환자가 없는 남의사에게 받았어요. 여느 때와 다른 것은 질염 치료였는데, 남의사분이 치료 시작과 동시에 다른 손으로 정확히 음핵을 잡으시더라고요. 여의사분은 단 한 번도 그 부분을 잡지 않고 질정을 넣으셨는데, 이 분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음핵 부위를 꼭 잡고 눌렀습니다. 질정 넣을 때에 그 부위를 손으로 만진 의사는 머리털 나고 이 남의사가 처음이었습니다. 머리 속으로 오만가지 생각을 다했습니다. 나가서 프론트에 항의할까, 간호사에게 정당한 치료행위였는지 물어볼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잔뜩 얼어붙어 도망치듯 그 병원을 나왔지만,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두고두고 그 일이 생각나면 수치스럽고 화가 납니다.
- ▶정기검진하려고 산부인과 진료를 갔는데, “별 이상이 없냐”고 물으니까 의사가 “괜찮다니까요!”하고 화를 내면서 질 안에 넣은 내시경을 마구 흔들었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화가 났지만 그냥 나오고 말았어요. 또 다른 산부인과에서 질염 같은 증세로 진료 받았는데 “그러게 잘 씻지 그래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어요.

## #청진기검진 #탈의요구

- ▶팔에 화상 흉터가 있어서 성형 상담을 하러 갔었고 어쩔 수 없이 상의를 벗어야 했는데 브래지어도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속옷까지 벗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얼결에 벗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수치스럽고 순순히 그 말을 따른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 ▶회사 근처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반말로 진료하며 “청진기진료를 해야 하니 브래지어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결국 탈의 후 상의를 허리쪽으로부터 들어 올리고 진찰을 받았는데, 요즘은 다 쇄골부분으로 청진기 진료하지 않나요? 속옷까지 다 벗으라는 요구가 이상했고 기분이 정말 많이 나빴습니다.
- ▶13살인가 14살때 외과에 갔는데 남의사가 웃옷을 다 벗지 않으면 청진기로 진찰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브래지어까지 다 벗으라고 강요를 했다. 그때가 딱 사춘기 시절이고 가슴 몽우리가 질 시기였는데 너무 수치스러웠음. 결국 맨 가슴을 다 드러내고 반라상태로 청진기 진찰을 받



음. 이게 벌써 25년 전 일인데도 아직까지 악몽이 생생하다 결코 잊혀지지 않는 수치스러움

- ▶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병원에 갔는데 청진을 옷 안에 넣어서 가슴 쪽으로 하더라구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계속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남자친구 동행으로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동행이 있으니 그 때는 옷 위로 등쪽을 청진하더라구요 그때서야 '아 뭔가 이상하구나' 느끼고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 ▶ 중학생 때 어깨인대를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청소년 캠프에 가게 됨. 캠프 부지 내에 작은 야전병원(?)에 들러 붓대를 새로 감는데, 의사가 "여기선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 화장실로 가자"고 하더니, 화장실 제일 구석칸에서 "속옷까지 다 벗으라"고 한 다음 붓대를 아주 아주 천천히 벗기고 아주 아주 천천히 감아줌. 아무리 생각해도 치료가 아니라 성추행이었음.

### #팔꿈치 #가슴누르기

- ▶ 대형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 레지던트로 보이는 사람이 레이저 기계를 내 얼굴에 쏘면서 팔꿈치를 나의 가슴 쪽에 접촉했다. 처음에는 실수로 접촉했겠거니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팔꿈치가 가슴 쪽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각도에서도 계속해서 내 가슴을 자기 팔꿈치로 여러 차례 눌렀다. 가슴에 팔꿈치를 계속 접촉시키다보니 레지던트의 자세가 되려 엉거주춤해질 정도였다. 당시 나는 20대 초반으로 너무 어렸고 '설마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겠나' 싶은 생각도 있었으며 시술하는 곳에 그 레지던트와 나만 있고, 무엇보다 사방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경험을 했단 걸 다른 사람들이 믿어줄까' 싶은 생각도 있어, 팔꿈치가 내 가슴을 누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는 소극적인 저항만 했을 뿐 어떠한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였다. 10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여전히 그때 제대로 항의하지 못 한 것이 억울하게 남아 있다.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저항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며 이후로 그 의료인의 성추행 행위가 더 대담해지진 않았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 ▶ 회사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과 재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거주지 근처에 있는 갑상선 잘 본다는 의사를 만나려고 몇 개월을 기다려서 겨우 예약 잡아서 감.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영 느낌이 이상했음. 지나칠 정도로 의사 팔뚝에 의한 가슴압박이 느껴짐. 기분이 나빴지만 나의 질병과 관련하여 안 좋은 소견이 나오거나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감. 위 상황에서 의사는 초음파를 보면서 나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준 다거나 친절하게 해주는 것 없이 고압적인 태도로 임함.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와 그 병원에 다시 안 가게 됨. 해가 바뀌고 종합검진을 받는데 다른 의사는 본인이 팔뚝을 들고 단지 검진기구만이 나의 갑상선에 위치하게 하여 검사를 진행함. 딱 그 순간에 내가 재검병원에서 경험했던 불쾌함이 의료를 가장한 성추행임을 깨달았음. 3-4년이 지났지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여전히 너무 기분이 나쁨.

### - 초음파검사

- ▶ 스무 살 때 가슴에 혹이 만져져서 초음파를 찍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검사는 처음이었는데, 중년의 남자 의사가 들어와 젖을 도포한 후에 초음파 기구로 아주 빠른 속도로 가슴을 문

지르는 행위를 10분이 넘게 진행했습니다.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초음파가 처음이라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당일 수술을 권하길래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초음파를 다시 받아보니, 기구를 특정 지점에 밀착시켜 사진을 찍고(초음파 상으로), 문지르거나 비비는 액션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상반신 위로 커튼을 치고, 조명을 끈 환경에서 여성 의료인이 진행하기도 했구요. 남자 의사에게 시술을 받을 때는 가슴이 그대로 다 노출된 상태였고, 사실상 기구가 없었다면 손으로 주무르는 것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었어요. 어린 나이였고, 초음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았다면 바로 멈추고 항의를 했을 테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심을 참고 그대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유형2] “이 남자 저 남자랑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진료 중 벌어지는 언어 성희롱

- ▶ 등쪽 피부에 염증으로 인한 넓은 흉터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어요. 환부를 본 남자의사가 대뜸 반말로 “미래의 배우자와 밤을 보내려면 불을 끄고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 앞에서요. 불쾌한 티를 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회가 됩니다. 지금도 남자의사가 진료하는 피부과에서는 진료받기가 꺼려져요.
- ▶ 고등학생 때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동네 이차병원 응급실 가서 주사진통제 맞고 소변줄 꼬고 있는데 나이가 어려보이는 남성 의사가 들어오더니 “뭐야 왜 이래 남자친구랑 잤어?” 이러는 거예요. 앞에 “사적인 질문이지만 대답해줄래” 라든가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의료의 특성상 필요하다”는 등의 양해성 코멘트도 없이 혹 질문했어요. 기분 나쁜 몇 가지 얘기를 더 했는데, 오래된 일이라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질문만은 기억에 남아요. 병원 자주 다녀서 어느 정도 의사들이 하는 말의 의도를 분간할 수 있는데, 저 의사의 질문에서는 호기심이나 놀림밖에 느껴지지 않았고 정말 불쾌했고, 할 수만 있다면 고발하고 싶었어요.
- ▶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성경험 유무 체크에 ‘유’를 체크하고 남자와는 성경험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산부인과의사가 코웃음을 치면서 “밑에 보니까, 안 해본 것 같진 않던데?? 무슨 말이래요?” 라고 해서 불쾌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황한 저를 보면서 “아아~ 그럼 뭐 기구 썼다는 애긴가?(기분 나쁜 웃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진료를 봤던 경험이 있어요.
- ▶ 모 개인병원 산부인과에 성병 검사하러 방문했을 때 원장이 “이 남자 저 남자랑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럼 성병검사 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 자리에서 불쾌함을 표현하고 바로 나왔는데, 사과는 커녕 진상 환자 취급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 [유형3] 개인정보유출, 불법촬영 사례

- ▶ 20대에 산부인과에 갔는데 의사가 제 동의 없이 카메라를 가져다 제 성기 사진을 찍었고 왜 사진을 찍었는지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여전히 궁금합니다.
- ▶ 저는 방광염에 자주 걸려서 비뇨기과를 자주 다닙니다. 방광염 재발로 근처 비뇨기과에 갔는데, 할아버지 의사더라고요. 대뜸 반말하면서 “방광염에 자주 걸리냐, 진찰을 위해 생식기를 봐도 되겠냐” 하더라고요. 내키지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책상 같은데 누워서 바지를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의료가구 위에 눕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유심히 보더니 “소음순이 비대해서 방광염에 걸리는것 같다”면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여주겠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휴대폰으로요?” 하니 자기 휴대폰으로 찍겠다고요. “보여주고 바로 삭제 하면 되지 않냐”고 자기 휴대폰을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싫다”고. “찍으실 거면 제 휴대폰으로 찍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계속 “바로 지울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아뇨! 제 껌로 찍어 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알겠다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겁니다. 너무 모욕적이었고 수치스러웠어요. 여기가 병원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생식기 사진을 확대하면서 소음순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2차로 수치스럽고 화났습니다. 뛰쳐나오듯이 병원을 나오긴 했는데 수많은 비뇨기과를 가봤지만 그런 곳은 처음이었고 절대로 다시 방문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방사선과 선생이라는 작자가 제 골반부터 발목까지를 과도하게 쓸어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더럽고 수치심을 느꼈지만 잠깐이면 끝나는 엑스레이 촬영이었기에 참고 말았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집에 돌아왔는데, 몇 시간 쯤 후에 모르는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형외과 방사선과 선생”이라며 “아픈 곳은 괜찮냐며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지금 환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사적으로 연락하는 문제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불쾌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급하게 마무리하고 그쪽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정형외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방금 방사선과 선생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내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왜 유출이 된 건지, 의사도 아닌 방사선과 의사가 내 통증에 대해서 왜 사적으로 상담해주는 것이 이 병원에서는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더니 원무과 직원이 당황하며 의사에게 전화를 돌려주었습니다. 의사는 죄송하다며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고 사과하였지만, 저는 여전히 제 개인정보가 병원 측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째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방사선과 직원을 앞에 불러서 사과하게 하고, 방사선과 직원의 핸드폰 통화목록에서 내 번호를 지울 것을 요구했고, 원무과에 남아있는 기록도 지워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해당 정형외과에 대해 올리려다가 참았는데, 그게 잘 한 행동이었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병원• 의료진에게 바란다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제언

○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하고 청진기 진료는 세심하게 하길 바람.

○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부당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어렵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공론화를 하더라도 의사들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면허는 성역이 아니다. 특히 **성폭력**과 같이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는 경중에 따라 **박탈**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성범죄전력**이 있는 의사의 **면허를 반드시 박탈**했으면 한다. 특히 성범죄는 재발률이 엄청나게 높으므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희망함.

○ 여성 환자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며 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형량이 늘어나면 좋겠다. 성범죄 저지른 의사는 자격을 박탈했으면 함.

○ 물리치료 등 접촉이 필수적인 의료 활동에 있어 여성의료인이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한다. 인터넷 후기로는 한계가 있다. 그 이전에 일부 남성 물리치료사들의 치료를 빙자한 과도한 신체접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 치료를 위해 손을 접촉하는 것과 주물주물거리는 건 느낌부터가 다른데 예민한 사람으로만 취급되고 싶지 않다.

○ 의료계 남성들의 **성폭행**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저와 같이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성범죄 적발 시 의사 자격 박탈**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한다.

○ 병원 내 녹음, 영상 촬영을 의무로 해 필요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 좋겠음.

○ **병원에서의 성추행, 성희롱, 의료사고 등 고발할 수 있는 국가 신고센터 설립.**

# 6.

## #젠더의식부족

의료진의 젠더의식부족으로 여성 환자를 이성애자로만 전제하거나 연령에 따라 ‘결혼, 출산’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진료 문화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성소수자 여성들은 안전한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의사를 찾는 것부터가 어려워 의료서비스 내 젠더감수성 제고가 절실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강한 의료인의 인식과 진료 문화로 인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환자의 정당한 요청이 거부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특히 산부인과에서는 아직도 ‘처녀막’을 운운하며 적절한 진료와 안내 제공에 실패하고 있었으며, 여성을 ‘남성과 결혼하여 출산하고 양육할 의무를 지닌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여성이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떨어뜨리고 있어, 의료진의 인식 개선과 젠더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요구하고 있다.

## [유형1] 의료인 여러분, 모두가 이성애자는 아닙니다 - 성소수자 의료경험 사례

- ▶자가면역 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꾸준히 약 처방을 받고 있는데, 초기 진료 때 결혼 유무를 물어봄. 임신에 이 병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내가 “결혼 안 할 거다”라고 하니까 의사가 “혹시 모르죠”라고 함. 나는 퀴어이고, 이성애 결혼은 할 일이 없는데 그런 대답 자체가 기분 나빴음.
- ▶저는 이성애자가 아닌데 성경험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성애자라고 상정하고서 질문을 해서, 1)이게 임신 가능성을 묻는 건지 2) 정말 가임여부 상관없이 성경험을 묻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묻는 건지를 설명해주면 대답하기도 수월하고, 그 쪽에서도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 ▶전 레즈비언이고요, 차별이 무서워서 퀴어친화적인 산부인과를 수소문 끝에 갔습니다. 진료 전 질문지 맨 위에 “성경험이 있습니까?”에 “예”를 체크하고 진료를 보러 갔어요. 의사가 파트너가 여성인지,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지 묻더니, “그러면 성경험이 없다고 체크해주셔야 해요.”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질문지에 “남성과 성경험이 있나요?”를 써놓았더라면 “아니오”에 체크했을 거예요. 전 성경험 있는데 왜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요!(웬지 억울)
- ▶건강검진통지서에 자궁경부암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소수자로서 꼭 필요한 검사인지 상담이 필요했음. 하지만 사람들 가득한 접수처에서 이야기하기에 아우팅이 염려되어 걸끄러웠고, 의사를 만나기 전 문진표를 작성해달라고 재촉하는 접수처 직원에게 결국 “남자랑 삽입섹스 경험이 없으면 안 해도 되나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고 검사받지 않았음. 의사에게도 어디까지 얼마나 신뢰상담이 가능할지 몰라 상담 받고 싶은 내용들을 물어보지 못함.

## [유형2] 21세기에 ‘처녀막(질 주름)’ 못 잃는 산부인과

### #처녀막 #운운

- ▶산부인과 갔었는데 자꾸 처녀막 처녀막 타령하는게 불쾌하고 비전문적으로 보이더군요. 처녀막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처녀막 타령하는지 모르겠어요
- ▶질염이 있는데 생리컵을 사용해도 되는가에 대해 물어보니 “성경험이 없는데 생리컵을 어떻게 사용하냐, 처녀막이 찢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만 반복함.
- ▶고3 때 질염인 것 같아 산부인과에 갔는데 남자 의사가 대뜸 “처녀막이 이이~쁘게 자리잡고 있다”라고 손으로 동작을 등글게 그리면서 알려주더라고요. 매우 불쾌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

았고, 질염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였으니까요. 남성이 "처녀막"을 어떻게 간주하는지,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몸을 그자체로 보지 않고 "남자가 좋아할" 몸인지 아닌지 판단해 전달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 #처녀막때문에 #검진불가

- ▶ 생리불순과 질염이 너무 심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성경험이 없다면 처녀막이 찢어질 수 있으니 따로 내시경을 비롯한 추가 검진은 해 줄 수 없다"는 얘길 들음.
- ▶ 자궁경부암 검진 때 성경험 유무 물어보면서 성경험 없어도 할 수 있는 검진을 (존재하지도 않는) 처녀막 때문에 거부당했다.
- ▶ 가장 효과적인 생리통 치료를 원했으나 병원에서 "처녀막 찢어진다"며 다른 치료를 권함.
- ▶ 평생 생리불순입니다. 10대 때 생리 불순 문제로 산부인과에 갔는데 "성관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질 초음파를 안 해줘서 의아했습니다.
- ▶ 산부인과에 갔는데 "남성과 삽입 성경험이 없어서 질 초음파 및 호르몬 기구 시술은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음.
- ▶ 매해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라고 연락이 온다. 그래서 검사하러 가면 성관계 여부를 묻는다. 경험이 없다고 하면 검사를 못 한다며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자궁경부암 검사는 해본 적이 없다. 왜 그런지 설명도 없고 안 된다는 경우가 많다.

## #위험요인이\_확인된\_경우에도 #환자가\_상관없다고\_해도 #불허

- ▶ 생리통이 너무 심해 꽤 유명한 대형여성병원에 진료 받으러 감. 진료 전 초음파를 찍어야 한다길래 질 초음파를 신청했는데 간호사분이 "성경험이 없어 처녀막이 손상되니 항문 초음파를 해야한다."고 하심. 저는 "상관없다. 처녀막이라는 표현도 잘못되었고 설사 그게 손상되더라도 상관없다. 항문 초음파보다 질 초음파가 더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가 있었다"고 분명한 요구를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대에 앉으니 항문 초음파를 하시더라 ^^...
- ▶ 건강검진을 위해 종합검진이 제공되는 내과에 방문했다. 자궁경부암까지 검진가능하다는 안내를 보고 갔는데 20대 초반인 나와 동생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은 산부인과에 가서 따로 검사받으라고 안내했다. 이유를 알지 못해 "자궁경부암검진이 가능하다 해서 왔는데 왜 산부인가를 가라는 것인지, 여자선생님이 없어서 그러는지" 질문했지만 남자간호사는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여자간호사가 와서 "성경험이 없거나 어리면 처녀막 때문에 여기서는 해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나와 동생은 "처녀막같은 건 상관없다"고 "자궁경부암검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여자간호사는 계속 만류했다. 결국 큰소리를 내고서야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산부인과에 간다고 검진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왜 검진을 거부하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본인이 괜참

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녀막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는 것이 매우 불쾌했다.

▶성관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검사를 제대로 안 해줍니다. 생리통이 심해서 병원가서 CT 찍고 초음파 찍고 별 걸 다했는데 CT에서 미세하게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직접 검사하면 확실하게 파악하고 수술을 할지말지 결정하면 되는데 성관계 경험이 없다고 직접 검사는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어요. 혹이 더 커져서 CT나 초음파로 보이고 그게 확실해지면 수술 받으라고 하네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생리기간도 아닌데 피가 비쳐서 아침 일찍 산부인과에 방문했어요. 먼저 간호사 분들이 이런저런 질문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경험 여부”를 물어보더라고요. 없다고 하니 왜 그런지는 모르는 채 ‘복부초음파’를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시고 대기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마시며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출근시간이 가까워 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분께 요청했더니 방광이 부풀어올라야 복부초음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하니 그제서야 그럼 항문초음파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간 진료실에서 항문에 초음파기계를 넣어 진료했지요. 의사가 “더 정확한 진찰은 사실 질내 초음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질내초음파를 하자고 하니 ‘환자의 성관계 여부가 질내 초음파를 할 수 없다. 성경험이 없는 환자가 처녀막(질주름)이 찢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성관계 여부”는 이성애 삽입섹스 전제였고, 더 정확하게 자궁을 살피는 일은 질내 분비물 채취와 초음파인데 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복부초음파를 위해 기다리고, 항문초음파를 받는 상황이 어이가 없었어요.

꼭 삽입섹스가 전제되어야 하는 진료와 처방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성의 성기가 제 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리 원해도 초음파기계는 제 질내에 넣을 수 없는 건가요?

▶제 지인은 어떠한 종류의 성 경험도 없습니다. 나이가 40대가 되면서 자궁건강이 신경 쓰여 건강검진에서 질경검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성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가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성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자궁은 질병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 개인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경구피임약이 안 맞아서 “호르몬 루프 삽입하고 싶다”고 하니 “출산경험이 없으면 아파서 안해준다”고 해서 다른 병원 알아보고 있습니다.

### [유형3] “여자 발에 무슨 무좀이...?”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고정관념이 진료에 미치는 영향들

#### #남자가\_어른

▶할아버지의 보호자로 병원에서 간병을 맡았던 적이 있는데, 의사가 할아버지의 병명, 상황, 예후에 대해 “남자 어른에게만 설명하겠다”면서 제게 설명을 거절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에게 설명해봤자 나중에 남자 보호자가 오면 다시 설명해야 하니 번거롭다”는 이유로요. “캐묻고 다시 설명할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고서야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 ▶ 산부인과에서 질염 진료 요청했는데 “중년 남자 의사가 봐야(?)하는데 남편 허락 받았냐, 부모님 허락 받았냐” 묻더라고요. ㅋㅋㅋㅋ 이거 내 몸이거든?
- ▶ 노인남성 의사가 나만 갔을 때는 반말 섞어가며 설명하더니 남편과 같이 가니 “사모님 사모님” 하며 나를 우대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면서 내 탈장수술에 대해 내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설명하고 내가 마치 남편의 소유물인듯 소유물에 손상 간 것인양 자세히 설명해서 무척 기분 나빴어요.

## #여자는\_OO해야

- ▶ 우울증으로 정신과 방문. 체중증가에 대해 호소했는데, “여자는 식당에서 나오는 공기밥 한 그릇 다 먹으면 안 된다”고 훈남. “공기밥 한 그릇 다 드시냐?”고 나에게 물어봄. 그게 우울증으로 힘든 환자한테 의사가 물어볼 말인가 싶어서 굉장히 불쾌했음.
- ▶ 무좀이 있는 분의 신발을 신고 무좀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왜 여자가 무좀에 걸리냐”고 얘기했습니다.
- ▶ 스케일링 하러 갔더니 “여자애가 왜 이렇게 치석이 많아. 관리를 안 했어.”라고 들음.
- ▶ “결혼은 안했지? 임신 중인지 알아야 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라고 묻던 의사의 말에 황당. 의사는 사람이 임신이 결혼을 전제로만 이뤄진다는 듯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들에겐 엄청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나봄.
- ▶ “결혼했어요? 결혼해야지, 연애하느라 바쁜가봐?” 재활의학과에서 이게 진료랑 뭘 상관??
- ▶ 산부인과 진료를 보던 중 미술대학 재학 중이라고 말하니 남의사가 “여자들 음대, 미대 많이 가죠. 시집 잘 가려고 가는 거예요. 음대, 미대 나오면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라고 말했다. 여성 진료를 보는 의사임에도, 여성에 대한 신뢰로 먹고 사는 개인 산부인과 병원 의사가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이 기가 막혔다. 그 이후로 남의사가 있는 산부인과는 가지 않는다.
- ▶ 역도를 하다 다쳐서 병원에 감. 40대중반쯤 되는 남의사가 “여자가 과격한? 운동을 해서 다친 거라고 왜 굳이 그런 운동을 하시냐, 살 빼는 건 다른 운동으로도 충분하다”는 말과 함께 타박을 주어서 황당했어요. 전 살빼기 위해 역도를 하는 게 아닌데 여자는 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한다는 식의 말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 ▶ 건강검진 받으러 내과에 갔는데 흡연여부 체크란을 보더니 “담배 안 피울 것 같이 생겼는데 담배를 피네~ 어유 술도 많이 먹네~” 와 같은 말을 해서 기분이 매우 나쁜 적 있음.

- ▶ 23살 때 질염 때문에 산부인과에 갔는데, 문진표에 섹스 경험 여부에 "있음" 체크했어요. 의사가 "어리니까 경험은 없을 거고..."라고 말하다가 체크된 것 보고 "어? 있네?"라고 했는데, 좀 황당했어요. 저 별로 어리지도 않았고, '의사가 저런 인식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 내가 청소년이었다면 무슨 말을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 [유형4] “애 낳으면 병 낫는다, 결혼하면 병 낫는다” 여자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 #여자는\_아이\_낳는\_사람

- ▶ 의사가 나에게 6개월 간격으로 유방암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면서 “치밀유방은 아이를 하나만 낳은 별”이라고 말함.
- ▶ 입덧으로 힘들어서 구토완화제를 처방받으러 산부인과에 갔는데, "애는 건강해요. 엄마가 참아요"라고 함. 당사자인 "나"를 위한 처방이나 말은 하나도 없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운운함.
- ▶ 발에 생긴 티눈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레이저로 빼기로 해서 부분 마취주사를 맞았습니다. 원래 아픔을 참는 편이라 꼭 참았는데 의사가 “아픈 걸 잘 참으니 애 잘 낳겠다”고 말하더군요.
- ▶ 부러 여의사를 찾아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러 갔었을 때였다. 30대 초반이었고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듣는데 “자궁이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다며 지금 아이를 낳으면 딱 좋다”는 사건을 들었다.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 출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 #결혼은\_곧\_출산 #결혼해야

- ▶ 유방암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저에게 “결혼은 했냐, 아이가 있느냐” 물었어요. “결혼했고 아이는 없다”고 했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됐나 보네'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됐고 제 결정에 의해 자녀를 낳지 않는 건데, 혼자 모든 걸 판단하고선 그걸 굳이 말로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 산부인과 검진을 받을 때도, 아이가 없다고 하면 꼭 "아, 아직 없으시고요." 하더라고요. 아직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
- ▶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부인과질환의 자세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의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예약 후 3개월을 기다려 간 진료였는데요. 기본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진료실에 들어섰는데 의사의 첫마디가 “결혼 안했네? 왜? 돈 벌어서 혼자 쓰려고 안 했어?”였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계속했고 “결혼은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하는 질문까지 하더군요. 통증 속에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간 전문의의 입에서 그런 소릴 들으니 정신이 혼미해지더군요. 중간중간 몇 마디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의사는 자기 블로그에서 친절한

상담과 건강을 비는 기도 문구(기독교인) 등으로 좋은 인상을 주던 사람이라 충격은 배가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이 의사의 친절과 배려에는 조건이 붙는구나, 자궁을 낭비하지 않는 여자여야 한다는 조건.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냥 자기 선택에 의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적의와 경멸이 진료 내내 느껴졌습니다. 내진을 해야 한대서 받았는데 너무 아파서 생전처음으로 크게 비명을 여러 번 질렀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고 내진 후 일어나보니 일회용 시트가 제 피로 흥건하게 젖고 바닥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주변에 출산을 경험한 이들을 포함해 여러 지인들에게 물어봤지만 내진으로 그렇게 피가 난 경우는 없다고들 하더군요. 의사에게 내진 후 “원래 이렇게 피가 많이 나냐, 지금도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긴장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시큰둥하게 답하고 말더군요. 진료실 들어선 순간부터 나오던 순간까지 내내 불쾌함과 모멸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관련분야의 대가로 알고 찾아갔고, 제 병증은 심한 상태여서, 이 의사가 아니면 내 병을 고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상황이라 이후 이 사람에게 추가적인 진료나 수술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불쾌하고 부당함을 느껴도 제대로 항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 #출산가능\_요건을\_유지하기\_위한\_의료

- ▶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언젠가 수술을 해야 하는 병이지만 당시에 제가 아직 어리고 임신 가능성이 있다며 수술 대신 약만 처방해주어서 의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거나 혹은 낳을 생각이 없는데 이런 사항에 대한 질문은 아예 하지도 않더라고요.
- ▶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출산 의향도 없고 근종 크기도 커서 “아예 자궁 적출을 고려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직 출산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절대 해줄 수 없다. 자궁 적출하고 싶으면 딱 병원 가라”고 위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출산에 대해, 내 몸에 대해 권리를 빼앗긴 기분이 들어서 계속 불쾌했습니다.
- ▶ 다낭성난소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 병이 내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다 ‘임신을 할 수는 있다’고 격려하듯 말한 의사선생님을 생각하면 씁쓸해요. 임신출산 계획이 없어도 부인과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제 일상이 아니라 만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아이를 가정하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 ▶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출산 가능성을 고려한 시술(보험 안 됨)을 반 강제로 받았습니다. 출산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래도…”라면서 제 의사는 무시하더군요.
- ▶ 생리통이 매우매우 심한 편입니다. 오래 다닌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호소했더니 피임약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효과가 없었다고 하니, “그럼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자궁 떼라”는 소리를 하네요. 자궁적출이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면 왜 바로 권유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고, 무엇보다 자궁적출은 함부로 권할 수술이 아니지 않나요.
- ▶ 결혼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느 병원에 가도 임신가능성이 있다면서 약 처방을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임신 계획이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면서.. 당장 아픈 내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있을 지 없을 지 모를 태아를 위한 태도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 #애\_낳으면\_병\_낫는다 #결혼하면\_병\_낫는다

- ▶ 산부인과 진료 때 남자 의사를 만나게 되면 질병에 대해 “결혼하면 증상이 저절로 나아질 거”라든가 하는 식으로 정확하지도 않고 의미도 알 수 없는 방식의 설명을 듣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제가 돈을 내고 전문 진료를 보는 건지 점집에 온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았네요.
- ▶ 산부인과에서 “결혼해서 애 낳아라, 낳으면 낫는다.” “남자친구가 잘 안 해주냐? 왜 결혼 안 하나? 남자친구가 잘 못 해주냐?” 따위의 말을 들었습니다.
- ▶ 하혈로 부인과 방문 때 남자 의사가 아주 고압적인 태도로 설교하더니 “성관계하면 관찰아진다”는 말을 했어요. 동네 병원에서 제가 학생 때부터 알던 원장은 십 몇 년이 지나서 제 나이가 30대 초중반인데도 절 보면 반말을 지껄이네요. “우울증 약을 먹는다” 했더니 “여자들 예민해서 문제다, 자기 다니는 교회 새벽기도 나오면 우울증도 나을 거다”라는 헛소리도 하구요.

### 병원• 의료진에게 바란다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제언

- 직접 아파보고 나니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생리통이 심해지던 몇 년간 병원에서는 그냥 진통제 먹어서 들으면 된 거다, 라고만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궁적출을 하라는 진단을 하더라. 여성 환자의 통증 호소에 원인을 함께 고민하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의학이 필요하다.
- 산부인과에서 성 경험 유무를 말할 때 동성 간 성관계 경험을 얘기하면 의사들의 표정이 굳는다. 그건 성 경험이 아니란다. 굉장히 불쾌함. 산부인과들이 쿼어 프렌들리 해졌으면 좋겠다.
- 산부인과에서 ‘성 경험(여부)’을 묻는데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질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직접적으로 질에 무엇이든 삽입이 된 적이 있는지를 의료적인 차원에서 물어야 한다. ‘성 경험=남성과 함께 한 남성 성기의 삽입’이라는 구닥다리 사고방식은 이제 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 질과 자궁을 관찰 할 때 초음파의 종류와 장단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다. 의료시술인데 어떤 미신과 관습 사이에서 쉬쉬하는 모습이 이상했다.
- ‘여성병원’이 좀 더 발전했으면 한다. 여성병원들을 보면 어디를 봐도, 여성의 신체를 진지하게 보는 곳이 없다고 느낀다. 오히려 ‘출산의 아름다움과 지지’를 강조하고 여성가의 미용을 권장한

다. 장기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아픈 것인데 그걸 진지하게 여기질 않고, 관련 약들은 부작용에 대한 생각이 들게 해 안전한 약품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초경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생리를 해본 적이 없다. 어떤 병원을 가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내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어디에서도 생리불순의 중요성(또는 심각성)을 다루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나에게 2달 이상 월경을 하지 않으면 꼭 병원에 와야 한다고 말해준 건 여성 의사뿐이었다.

○ 의료계에서 쓰는 단어 중 성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 예를 들면 자궁, 폐경과 같은 단어를 개선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의무적으로 의사들에게 교육했으면 좋겠다. 또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성 인권(성인지) 교육도 필수로 교육했으면 한다. 의사들은 면허갱신제도가 없어 본인이 관심 갖지 않는 이상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성 인권 의식을 쫓아오지 못한다. 꼭 관련 제도가 생겼으면 한다.

○ 남성중심으로 의약품이 개발되어 일반 약품 용법이나 치료방법 등이 남성 기준이라 여성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놀랐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 그리고 피임약 인식이 이뤄지면 좋겠다.

○ 몸집이 작은 편인 여성으로서 몸집이 큰 남성들과 동일한 용량의 약을 처방 받고 있는 것에 크게 불안함을 느낀다. 남성만의 평균을 기준으로 여성을 치료하고 진단하지 않아야 한다.

○ 출산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높일 수 있게 시스템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제발 여성의학 공부한 사람들이 요즘 나온 논문들도 읽고 업데이트 좀 했으면 좋겠다.

○ 생리(월경)에 대해 더 연구되어야 한다. 생리는 원래 아픈 거라고 치부하기에는 여성의 평생에 걸쳐 너무 큰 삶의 저하와 건강에 해를 끼친다. 생리 때문에 불면증이 오고 열이 난다면, 엄연히 생리 합병증이라고 불러야하지 않을까?

○ hpv 감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자아이들이 아닌 남자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춰야 한다는 논문이 이미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현재 여자아이들에게만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가다실을 무료로 접종 하고 있어 <성에 대한 책임>을 어린 아이들에게 조차도 여자 아이들에게만 책임 지우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성교육의 부재가 의료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고 바로 잡아야한다.

# 7.

## 기타

### #건강보험 #비용 #의료기구

의료비용에 관한 여성들의 불쾌한 의료경험은 산부인과에서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 유난히 산부인과 진료 내역에 비급여항목이 많은 것 같다거나, 여성에게 매우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약이 모두 비보험이거나, 같은 질병과 같은 처방에도 여성의 임신 계획에 따라 보험 처리가 달라진다는 여성들의 의료 경험담이 이어졌다.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2004년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한 것과 같이 ‘인구정책’에 따라 의료비를 차별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이 인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들이 병원에서 겪는 불쾌한 경험은 의료기구로부터 비롯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은 으레 성 중립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 - 성 편견으로 진료실에서도 차별받는 여성의 애폴 권리에 대한 보고서>라는 책이 지적하고 있듯, 의료 과학 기술을 둘러싼 많은 것들은 여전히 남성(그리고 의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성(그리고 환자)의 안녕과 편의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로봇이 수술과 자동차 주행을 대신하고 자동차 운전대도 온열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시대에 의료 기구들은 여전히 딱딱하고 차가우며, 가슴을 기구에 얹고 납작하게 눌러 촬영해야 하는 유방암 검사 기계는 다양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남성을 포함한다)을 고통 속에 내몰기도 한다. 의료인 편의 중심으로 설계되어 이용되고 있는 이러한 의료기구들이 조금 더 환자 중심으로, 다양한 몸과 환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기술과 기구로 재편되는 날을 그려본다.

### [유형1]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변하는 보험적용

- ▶ 산부인과 진료 볼 때 같은 질병이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보험처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은 것은 똑같은데 임신 계획이 있을 때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비혼주의이면서 산부인과 질병이 있는 저는 그럼 평생 보험처리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부인과에서 분명 흔한 질환이고, 호르몬 치료 요법으로 경구용 피임약을 처방받는데 대부분의 경우 4세대 피임약인 야즈, 야스민을 처방해줍니다. 문제는 이 두 약은 비보험이예요.

### [유형2] 의료기구,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 ▶ 여성의학과에서 질 내시경을 하기 전 “성경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제 나이대엔 섹슈얼리티를 탐색할 기회가 없었어서 이 질문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나마 직원이나 의사분이 다 여성이긴 했지만, 시술도 너무 아팠고 굴욕의자라고 하는 다리 벌리는 의자에 앉아야 해서 너무 불편하고 무슨 실험당하는 느낌이었어요.
- ▶ 산부인과 진료 경험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의료인 중심의 의료기구는 정말 문제입니다. 초음파 진료 때 다리를 벌리고 뒤로 과도하게 누워있어야 하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의사가 준비될 때까지 환자는 하의 탈의한 채 다리 벌리고 기다려야 하고,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수술 도구 및 의사의 손을 성기에 집어넣음. 얼마나 불편한지 전혀 모르는 의료인의 태도, 너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도 재빨리 옷을 추스릴 새도 없이 의사의 진료소견을 듣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 ▶ 언제나 충격적이고 싫은 산부인과 진료의자. 정말 다른 대안이 이렇게나 없는 걸까 항상 생각해요.
- ▶ 3년 전에 유방암검사를 하는데 가슴을 기계로 납작하게 누르는 검사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근데 유방암 검사만 하면 젤 바르는 초음파랑 이 검사를 꼭 같이 하라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확인된다고. 어떤 산부인과는 초음파만 하면 의사 면담 못할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검사를 덜 아프고 인간적으로 하던지. 로봇수술도 한다는 시대에 가슴 조직 검사를 꼭 그렇게 해야하는지, 왜 환자가 편하게 느끼는 정도의 검사로는 안 된다는 건지 산부인과 의사들도 임신체험처럼 가슴검사 체험해보시길.... 2년 전 끝난 모유가 튀어나올 정도라구요.
- ▶ 가슴이 정말 작은 편이어서 유방검사 하러갔다가 너무 아팠습니다. 잘 모아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두어 번 한 거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검사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네요.

▶건강검진 할 때마다 경험하는 유방암검사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일. 검사기기는 가슴을 최대한 납작하게 누른 상태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기 위해, 프레스 같은 기계를 양쪽에서 강도 높게 누르는데 이때 가슴만이 아니라 겨드랑이 어깨뼈 가까이까지 심하게 압착을 하게 되어 정말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 그나마 이를 담당하는 엑스레이 기사가 고통을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심리적 위로라도 받지만, 너무나 당연한 검사수순이라고 철커덩철커덩 압착하고 사진 찍고를 반복하고 나면 ‘내년에는 절대로 찍지 말아야지’ 결심하게 된다. 거기다가 압착기에 내 가슴을 밀어 넣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내 가슴을 계속 쓸어내리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그 또한 불쾌하기 이를 데 없다. 이 같은 고통을 매년 수많은 여성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적이라고 생각. 위장조영술이 수면내시경이 된 것처럼 유방암검사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이 진화가 거듭되고 있는데 여성들의 유방암검사만 제자리걸음인 것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다.

▶예시로 들어주셨던 유방암검사나, 산부인과 진료의사... 하... 처음 검사를 받았을 땐 순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이렇게 밖에 만들 수 없는 걸까요(ㅠㅠ)?

### 병원• 의료진에게 바란다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제언

○ 산부인과 진료 내역에 비급여 항목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

○ 산부인과에서 검사비용 정확히 알려주면 좋겠다.

○ 현재 유럽에서는 피임약과 응급 피임약의 종류가 많고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보험이 적용된 가격으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하며 가격도 유럽의 5배가량 비싸다. 응급 피임약은 말 그대로 응급하게 피임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목적과 다르게 의사 처방을 위해 주말에는 처방 받을 수도 없으며 돈이 없는 경우 피임이 불가하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응급피임약 및 많은 피임약에 보험이 적용되어 누구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 건강검진 시스템에 보험적용 항목이 대폭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 〈2020 여성들의 의료 경험 사례 수집〉

### II. 변화를 위한 정책 제언

### ■ 의사 대상 젠더 감수성 교육, 과목별 젠더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한국사회는 빠르게 젠더의식이 변화하고 있음. 나이가 어려보이는 여성에게 반말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을 촬영하며 환자가 이성애자일 거라는 편견 속에서 진료를 이어가는 등의 낙후된 진료현상은 환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함. 이를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의사회 등의 많은 관심이 요구됨. 우선 매년 실시하는 대한의사협회 의무교육 등에 <젠더감수성교육>을 신설하여 성과 연령, 가족구성, 성적지향 등에 따라 차별적 의료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인식변화를 만들어내야 함. 과목별 진료와 관련해서도 환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의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성차별적 진료행위를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여성 의사 비율 확대

국내 여성 의사 비율은 여전히 낮음.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 2018)’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의사 121,571명 중 여성 의사 비율은 불과 25.4%라고 함.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각각 21.0%와 27.0%로 매우 낮은 수치임. 여성 의사들의 진료과목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임. 이는 다양한 진료현장에서 여성의 시선이 반영될 가능성을 줄어든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임. 설문과 사례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환자들은 여성의 경험을 좀 더 잘 이해하는 의사를 원하고 있음. 이러한 요구와 다양한 선택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 의사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 성범죄 전력 의사 면허 취소 및 정보공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성폭행,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사항이 아니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문제임. 이는 전신마취 등을 포함해 자신의 신체를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겨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 아닐 수 없음. 최소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의 면허는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또한 의사의 성범죄 전력이 소속 병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몸을 진료하는 의사의 전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환자의 몸을 촬영한 사진 등 진료기록 및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

환자의 몸을 촬영한 사진, 개인연락처 등 진료기록 및 개인정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개선되어야 함. 대형병원의 경우 이러한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작은 병원에서는 구성원들의 인식교육조차 제대로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이미 의료현장 대부분이 디지털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 관리의 문제는 젠더폭력에 노출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음. 의료진이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 이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접근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와 타당성이 기록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특히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사적으로 이용된 경우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함.

### ■ 건강보험 적용 및 건강검진 대상 심사에 성별 영향 고려한 의사 결정

건강보험 적용 항목 및 건강검진 대상 항목 등을 선정함에 있어 성별 영향이 고려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함. 건강보험이나 건강검진 적용 대상을 심사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 예컨대 2020년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의 환자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으로써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던 여성들의 상당수가 그 혜택을 볼 수 있었음. 무엇이 국민 다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누가 심사하는가에 따라 매우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임. 이에

성별 차이와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논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한 사회적 관리가 보장되어야 함.

■ 보건의료 R&D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최근 미국연구팀<sup>1)</sup>에 의해 다시 한 번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식품의약청(FDA)이 승인한 약품 중 항우울제, 심혈관질환 치료제, 항경련제, 진통제 등 처방 용량에 있어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고 함. 그동안 대부분의 약품이 남성대상 임상실험을 기반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임. 오랫동안 여성들이 고통을 호소해온 유방조형술이나 산부인과 진료의자 등의 신기술 대안과 관련해 관심이 저조한 것도 여성의 신체 특성과 고유한 경험이 존중되지 않는 보건의료시스템의 결과임. 여전히 보건의료 R&D 영역에서 성인지적 접근은 매우 부족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신체적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1)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어빙 주커 통합생물학(integrative biology) 교수와 시카고대학의 브라이언 프렌더가스트 심리학 교수 연구팀(연합뉴스, 2020.8.14.)

병원• 의료진에게 바란다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제안

#인력충원 #처우개선

○ 간호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1인당 배치된 환자 수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참 힘들다.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초 단위로 생사가 결정되기도 하는데도 인력이 너무 적어 간호사들이 더 급한 환자를 빠른 시간 내로 파악하기가 참 힘들 것 같다.

○ 의료진도 뻥센 스케줄과 대기 환자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고 고단해서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겠지만 환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선은 **적정수의 환자를 충분한 시간동안 진료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돈벌이로 보지 않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지길 바란다.

○ 의대 입시 정원을 늘리고 간호사 채용과 근무 환경의 불합리를 개선하여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함.

○ 우선 의료계 종사자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3교대 근무는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연구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교대 근무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부인과\_이름변경 #인식개선

○ 산부인과라는 호칭 바꿨으면 좋겠다. 출산을 위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니까.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족 의료보험에 소속되어 있으면 모든 의료보험 내역이 병원 이름까지 집으로 전송되던데, 이는 여성 청소년들이 더더욱 비뇨기와 진료를 받기 어렵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 내역이 집에 전송되어 쓸데없는 오해를 받는 게 싫어서 병원에 혹시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지 물어본 적까지 있다. (엄청 비싸서 포기) 이러한 내역에 대한 보안과 더불어 산부인과의 호칭 또한 여성 비뇨기와 정도로 불렀으면 좋겠다.

○ 산부인과라는 이름을 변경하거나 학교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산부인과에 대한 **여성청소년의 접근성**이 좋아졌으면 한다.

○ ‘임신한 사람만 간다’, ‘가임기 여성만 다닌다’는 산부인과에 대한 편견이 개선되면 좋겠다. 혼인/임신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나의 건강을 위한 병원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보호자\_제도

○ 비혼인데 보호자 없을 때 입원할 때 소득 있는 직장인이라는 조건의 연대보증인 서명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로 병원을 잘 안 가게 돼서 병을 키우는 거 같아요.** 보증인 없을 때 은행에 돈 빌릴 때처럼 보증서를 신용보증 기관 같은 데서 떼 주면 좋겠어요. 보호자 없는 사람은 어떻게 수술 함

니까?

○ 현재 병원에서 작은 수술이라도 받으려면 직계가족의 동의서가 필수다. 요즘 비혼인 1인 가구도 많고 동성커플도 많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필요한 직계가족 수술 동의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본인의 수술 동의서면 충분하지 않나?

## #국가기구

○ 자유시장 경제 체제임에도 소비자보호원 등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의료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의료체계에는 왜 소비자 구제가 되지 않고 있을까. 의료사고와 과잉진료, 무책임한 진료 등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국가 기구가 너무도 절실히 필요하다.

## 한국여성민우회

발행일 : 2020년 11월

발행인 : 강혜란, 최진협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 3층

전화 : 02-737-5763 / Fax 02-736-5766

홈페이지 : [womenlink.or.kr](http://womenlink.or.kr)

이메일 : [minwoo@womenlink.or.kr](mailto:minwoo@womenlink.or.kr)

트위터 : @womenlink

인스타그램 : @women\_link

페이스북 : [womenlink1987](https://www.facebook.com/womenlink1987)

작지만 큰 후원, 문자후원 : #2540-3838 (1통에 3,000원)

본 사례집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2020.X~X월까지 한국여성민우회가 온라인 서식을 통해 수집한 여성들의 의료 경험 사례를 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영지(박영지), 노새(홍연지), 그리고 미몽(강혜란)이 함께 정리하고 각색하였습니다.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